

“교단 화합을 위해 섬기는 총회장 되겠다”

기침 80대 이음 총회장·22대 김일엽 총무 취임감사예배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가 9일 대전광역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 교단기념대강당에서 80대 이음 총회장·22대 김일엽 총무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총회 교육부장 김성열 목사(만남의교회)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선 한국침신대 84동기회 회장 윤양중 목사(성산교회)가 대표로 기도했고 김명숙 사모(낮은자교회)가 특송한 뒤, 교단 75대 총회장을 역임한 윤재철 목사(대구중앙교회)가 '보고 싶은 은혜의 날'(장12:18-20, 창15:18-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오늘 두 분의 헌신과 수고, 순종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사용하시는지를 기대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

실이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사기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14차 총회가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취임 축하식에선 최인수 목사(공도중앙교회)의 사회로 이음 총회장(대전은포교회)이 이종성 직전총회장(상목수교회)에게 이임패를 증정했다. 또 이 직전총회장이 이음 신임 총회장과 김일엽 총무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음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참으로 가까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신뢰하며 함께한 교회 성도들과 목회 동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단



직전 총회장 이종성 목사(오른쪽)가 이음 신임 총회장에 취임패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침

의 화합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일엽 총무는 “어려운 시기에 총무로서 책무를 다하며 총회가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총무의 자리에서 협력의 장을



직전 총회장 이종성 목사(오른쪽)가 김일엽 총무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침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하의 시간에선 교단 77대 총회장을 역임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가 영상으로 이음 총회장과 김일엽 총무의 취임을 축하했고, 74대 총회장을 역임한 박



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침

중철 목사와 한국침신대 피영민 총장도 축하했다.

이후 이음 총회장이 114차 회기를 섬길 총회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기독교한국침례회 기관장협의회(회장

주민호 목사)를 비롯해 교단 기관 대표의 축하패와 화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일엽 총무가 광고한 뒤 62대 총회장을 역임한 이대식 목사(가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더욱 주님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역자들 많이 나오길”

세복협, 제29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 개최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이하 세복협)가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4년(제29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한국기독교선교대상심사위원회가 주관했다.

1부 개회예배는 대표회장 차장현 목사의 인도와 류지혜 목사(열쇠교회)의 반주로 시작해 부총재 김수용 목사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강은숙 목사의 성경봉독, 화광레이디스의 특송, 이사장 이규학 감독의 설교, 사무총장 황연식 목사의 알림, 상임부총재 윤보환 감독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 선교 과거 현재 미래(계 2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규학 감독은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은 그 시대,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일과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며 “한국 5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해서 여러 번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았다. 개신교는 1876년 네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며, 최초의 번역된 성경이 반입되었지만,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을 첫 선교로 본다”고 했다.

이어 “140년 전 두 선교사의 입국을 시작으로 한국은 선교사의 황금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 이유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결과이다. 곳곳마다 교회, 학교, 병원들이 들어왔으며, 당시 한일합방 후 국권을 상실한 때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일본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위하여 교회로 몰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 5천 년 역사를 깨웠고, 한국 백성들의 영적인 힘을 주었다. 그 힘으로 31운동을 일으켰으며, 그 후 꾸준히 교회가 부흥되었다”며 “그 당시 부흥은 교회가 교인 증가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교인 수가 급속적으로 증가했다. 교인들의 삶의 목적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과 교회 선교과제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고난 받는 민족과



제29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시상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오한 기자

함께 했고, 생명을 주는 사랑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의 큰 사건을 달려왔다. 선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내일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현실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 성경본문에서 예베소교회는 그렇게 부흥되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교회 선교과제는, 첫째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특히 교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며, 둘째로 세속적 물질이 교회 속에 들어온 이때, 교회를 바로 지키고 세우고 복음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며 “셋째로, 왜 이렇게 교회가 평균과 중간이 사라진 양극화 현상,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가을에 로잔대회, 악법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WEA 대회가 치해질 한국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라며 “마지막 넷째로 윤리적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진 제2부 시상식은 준비위원장 박철규 목사의 사회로, 연혁 2024년 행사 보고 영상시청, 선교대상 시상, 꽃다발 증정, 총재 엄기호 목사의 축사, 수도국제대 김민기 교수의 축가, 수상자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선교대상 시상에는 이규학 감독이 상패 수여를, 엄기호 목사가 메달 수여를, 차장현 목사가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상에는 ▲목회자 대상에 모상련 목사(목포주안교회, 미국웨스트민스터국제대 총장, 주안세계선교회 회장) ▲부흥사

대상에 윤호균 목사(화광교회 담임, 성산수양관 원장, (사)경기총 대표총회장) ▲선교사 대상에 임현진 선교사(불꽃교회(기감) 파송 선교사, 아펜젤러아시아선교센터 센터장, 태국 코랏 한인공동체 담임/A국 선교사) ▲여성지도자 대상에 강복렬 목사(소생교회, 소생문막교회 담임, 아시아선교협의회 이사장, 소생생명목회 여성원 원장) ▲평신도지도자 대상에 김정자 권사(이천글로벌침례교회 권사) ▲특수선교(탈동성애대책부문) 대상에 하다니엘 목사(사자교회(예장백석) 담임, 건전신앙수호연대 대표) 등이 각각 수상했다.

축사를 전한 엄기호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가려 시상한다”며 “1990년 11월 12일 제1회 수상자로 목회자 대상 한경직 목사, 부흥사 대상 신현균 목사 등 다섯 분을 시상한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가리성 같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선정해 시상하여 왔다”고 했다.

엄 목사는 “지난 2019년까지 제28회 시상식을 하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금년 2024년도에 제29회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제29회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모든 이들을 축하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복음통일을 속히 이루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촉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상소감을 전한 모상련 목사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함께 해 준 가족들과 목포주안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 목사는 “역대 수상자들에 비해 작고 이름 없이 부족한 자에게 상을 주셨다”며 “한국교회의 농어촌교회에서 중소도시로 교회를 개척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내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또 임현진 선교사는 “제가 건강해 보일 것지만 사실 폐암 환자이다. 8년째 투병을 하고 있다”며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와 얘기하던 중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로 받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힘들 때가 많지만 간간히 힘을 주시고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케이크커티싱, 부총재 전용만 목사의 오찬 기도 순서로 모두 마쳤다.

한편,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는 각 교단 간의 연합과 민족 복음화의 촉진과 세계 교회의 지도자 및 단체와 협력하여 세계선교에 주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족복음화를 위한 국내 부흥운동의 전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사업 ▲교단 간, 단체 간의 연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교회 부흥을 위한 교역자 연수사업 ▲국내외 선교활동을 위한 선교 후원 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16회 여성 클린콘텐츠 정
직 UCC 전국공모전 시상 >> 7면

영적 후퇴에 눈을 짓는
주님 ‘퀴바디스 도미네’ >> 22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예정),
45층 1,072세대 랜드마크 프리미엄!

금정역, 큰 변화의 시작!

안양천 힐링라이프, GTX-C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예정),
인덕원-동탄선 호계역(예정) 미래비전까지
푸르지오그랑블에서 모두 누립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59㎡ Type 분양마감!!
76㎡ Type 마감임박!!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총 1,072세대 59㎡ / 76㎡ / 84㎡ / 95㎡ 지하 2층 - 지상 45층 8개동 | 시행수탁 | 문의: 1599-9399

*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146-70(금정역) 111필지 | 일면 | *본 홍보물에 서면된 CG, 이미지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개발계획은 관련 기관 사업승인 과정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행사는 부연합니다. (개발계획 2024년 05월 지가계약)

“하나님 은혜로 하는 일... 한국교회 위한 일 하고파”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금광사업 하고 있는 장철훈 대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는 베스트캡 장철훈 대표(예장 합동측 신당동 소망교회 안수집사)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현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를 짓는 등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선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장 대표는 과거 CCTV 납품사업으로 한때 한국에서 크게 성공했던 이후, 사업차 방문한 짐바브웨에서 현지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금광사업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매우 힘든 과정을 지나기도 했지만, 그러던 중에도 현지인들을 돕는 선교만큼은 계속 했다고.

그는 “스스로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소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기도해 왔다”

며 “그런 중에 짐바브웨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곳의 열악한 환경과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이 될 때쯤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건축했다. 과거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그랬듯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가 지은 초등학교에서는 짐바브웨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하고 있다고 한다.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의료 및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부족하지만 양심적으로 일하고, 또 남들과 함께 나누려 노력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며 “기독교인이기에 늘 조심하고 또 양심을 지키



장철훈 대표 ©베스트캡



짐바브웨 광산 모습 ©베스트캡



짐바브웨 주민들을 위해 판 우물 ©베스트캡

려 노력하게 된다”고 했다.

짐바브웨 사업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조차 힘들었을 때, 장 대표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

쓰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다. 장 대표는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금광사업이 안정되고, 짐바브웨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기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금 관련 사업을 준

비 중인 장 대표의 또 다른 비전은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이다. 장 대표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인데, 언젠가는 한국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며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월세를 감당해 온 지 벌써 오

래 됐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경찰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찰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이 일을 더욱 확장해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 박옥수 딸,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아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김모(17)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창단장 박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 창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단원 조모(41) 씨와 신모(55) 씨 역시 각각 징역 4년, 4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52)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정신 이상

증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와 김씨가 피해자를 결박한 행위는 자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대 고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으러라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고의는 성립된다”며 “조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결박했으며, 이는 학대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은 전조증상이 짧아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여성도가 과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시스

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의 어머니 함씨는 딸의 정신과 치료 필요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딸을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낸 것은 치료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예측 여부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노형구 기자

손현보 목사 “나라 살리는 기도 절실” 요청

“성도는 기도할 의무와 특권 있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지난 7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라며 다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손 목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애틀랜타 새한장로교회 집회 인도에 미국에 있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긴급히 현지 식당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12.3 게임사태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났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대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 목사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기게 될 줄로 믿는다”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해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5.18과 6.10항쟁, 그 다음 IMF 등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대신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다. ©세계로교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손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를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는다”면서, “많이 속상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도는 기도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선영 기자

감신대 교수들 “비상계엄, 민주주의 혼드는 잘못된 결정”

시국선언문 발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최근 발표했다.

교수들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엄령을 선언했다. 우리는 이 계엄령 선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

는 모든 사람들은 직위에서 물러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리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감신대 교수들.

권진수, 김기철, 김민수, 김충연, 남기정, 박성호, 박은영, 박진경, 박창현, 박해정, 서종원, 소요한, 양성진, 오광석, 유경동, 이은재, 임진수, 장상배, 장재호, 조형진, 최태관

김진영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세, 힘센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새겨진 남성들 일어나야”

[인터뷰] 한국교회에 '남성 사역' 비전 소개하는 '맨 인 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 이병일 목사

◆많은 남성 치유·회복 경험 못한 채 “교회 놀이”... 신실한 남성 영향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

한국교회에서 '남성 사역'이라는 말은 아직 생소하다. 남성들을 위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다수인 한국교회 상황에서 남성 사역은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즉,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도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남성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남성 사역단체 '맨 인 더 미러(MAN IN THE MIRROR)'의 한국지부 대표인 이병일 목사가 한국교회에 '남성 사역'을 본격 알리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이 목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에 남성 사역을 소개하고 싶다. 한 남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라며 “경건하고 신실한 남성의 영향력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바꿀만큼 크다. 한국교회가 이 사역의 중요성을 꼭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제는 이 목사 스스로의 간증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며, 한때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생각과 마음, 신앙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그에 따르면 많은 남성이 교회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단지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아내를 따

라 마지못해 다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일반 남성 성도에게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 목사는 말한다. 많은 경우 목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 이 목사는 “그렇게 되면, 목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빠지기 쉽다”며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다.

‘남성 사역’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목사는 “남성 사역은 남성들을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해 성경의 말씀과 예수의 이야기가 그들 안에 지속적으로 심겨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성 사역에선 지속성 중요, 소그룹이 적합...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이처럼 이 목사는 남성 사역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참여하는 남성들 사이의 깊은 교제와 지속적 훈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소그룹 중심의 ‘남성 사역’은, ‘아버지학교’와 같은 일회성 사역과는 구분된다는 게 이 목사의 말이다.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남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남성들을 일으켜 세운, 매우 좋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5-6년 정도 만남의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근본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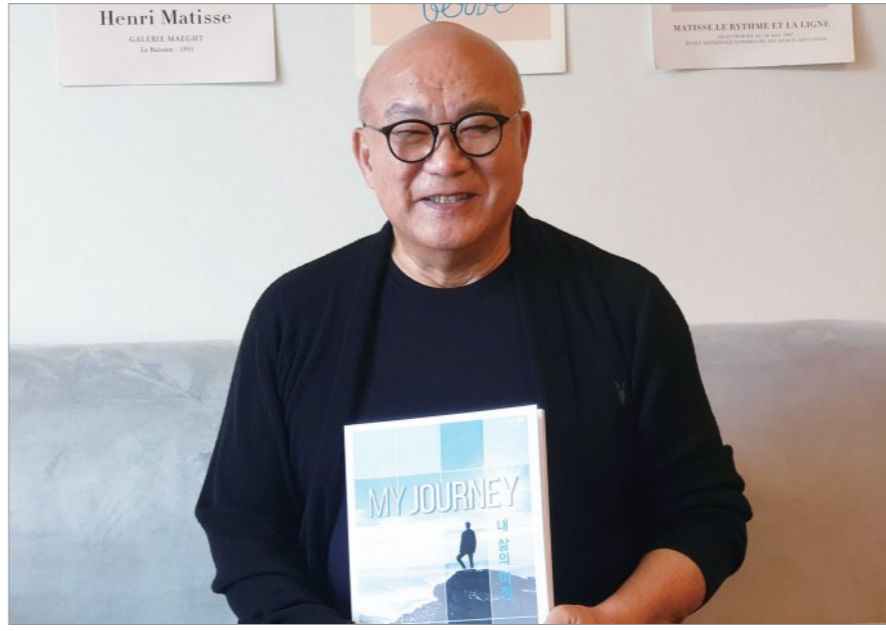
양육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남성 사역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남성들이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직접 번역했다. ‘MY JOURNEY-내 삶의 여정’이라는 책으로 ‘맨 인 더 미러’의 창립자인 패트릭 몰리(Patrick Morley) 목사가 집필한 교재다. 몰리 목사의 저서 『The Man in the Mirror』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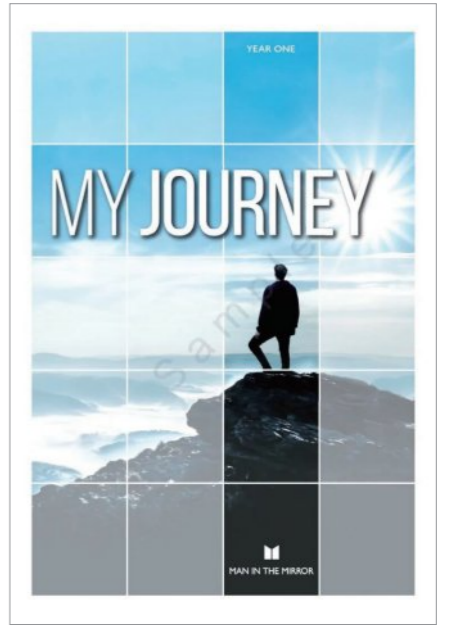
이 교재는 ‘남자와 성경’ ‘남자와 기도’ ‘남자와 예배’ 등 남성들의 신앙 관련 주제를 비롯해 결혼과 자녀, 친구와의 우정 등 일상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으며, 두려움과 분노, 정욕과 돈 등 매우 실제적인 이슈들을 정리함으로써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대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교재는 1권에서 3권까지 총 3권으로 구성돼 있다. 한 권의 사용 기간이 1년이어서 총 3년간 이 교재를 활용해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소그룹의 리더는 이 교재를 따라 약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에서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목사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리더가 먼저 가면을 벗고 솔직해져야 한다”며 “결국 남성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리더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다.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남성들의 회복은 시작되는



‘MY JOURNEY-내 삶의 여정’을 번역해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이병일 목사 ©김진영 기자



남성 소그룹 사역 교재인 'MY JOURNEY-내 삶의 여정'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회, 훈련과 준비 없이 남성들 세워선 안 돼... 소그룹 통한 ‘남성 사역’으로 참된 일꾼 양육

이 목사는 이러한 소그룹 사역은 남성들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러한 훈련 과정 없이, 그저 몇 번의 행사나 집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남성들을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게 이 목사의 문제의식이다. 그렇게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세워진

남성들은 이내 무거운 사역의 짐에 지쳐 침묵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소그룹을 통해 훈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새겨졌을 때 비로소 남성들은 사역자로서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물론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 번 세워진 남성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 변치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목사에 따르면 지구촌교회 이

동원 원로목사는 “남성 사역의 부흥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뜨거운 감자”라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이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남성 소그룹 사역과 이를 위한 교재를 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사역할 방침이다. 남성 사역과 소그룹 교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병일 목사(010 8421 6090)에게 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대학교육의 미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란?

기독교경영연구원, 2024년 12월 기독교경영포럼 개최

기독교경영연구원이 최근 네패스 서울 사무소와 온라인(중)으로 동시에 2024년 12월 기독교경영포럼을 ‘기독교경영과 혁신창업’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포럼에서 최도성 총장(한동대학교 사신)이 ‘대학교육의 미래와 기독교대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총장은 “한국의 학령인구는 2023년 기준 23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인 40%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약 12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뿔뿔’이라는 표현처럼 서울과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은 16년째 동결되어 평균 732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유지비용(1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가성비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글로벌 대학의 경쟁력은 졸업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에 있다. 이를 위해 영어 중심의 교육,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언어 장벽과 교수법의 한계가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 교육은 19세기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들을 대량 생산형 부품처럼 다루고 있다. 특히 18세에 성적이 따라 전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학이 생존하려면 특성

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며,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 방식과 콘텐츠를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강봉수 대표(답비전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대표는 “저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제지역연구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창업을 시도했지만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 운영 중이며,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 비즈니스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을 통해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게 되었으며, 그 속성 중에는 소유의 불균형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저는 가진 능력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교 활동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저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꿈이 없었지만, 꿈을 가지게 된 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와 꿈에 대한 열망이 없었지만, 컨닝

사건을 통해 꿈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았다. 그 후,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지만, 곧 공허함을 느끼고 더 깊은 꿈을 추구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저는 세상을 바꾸자는 비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선교와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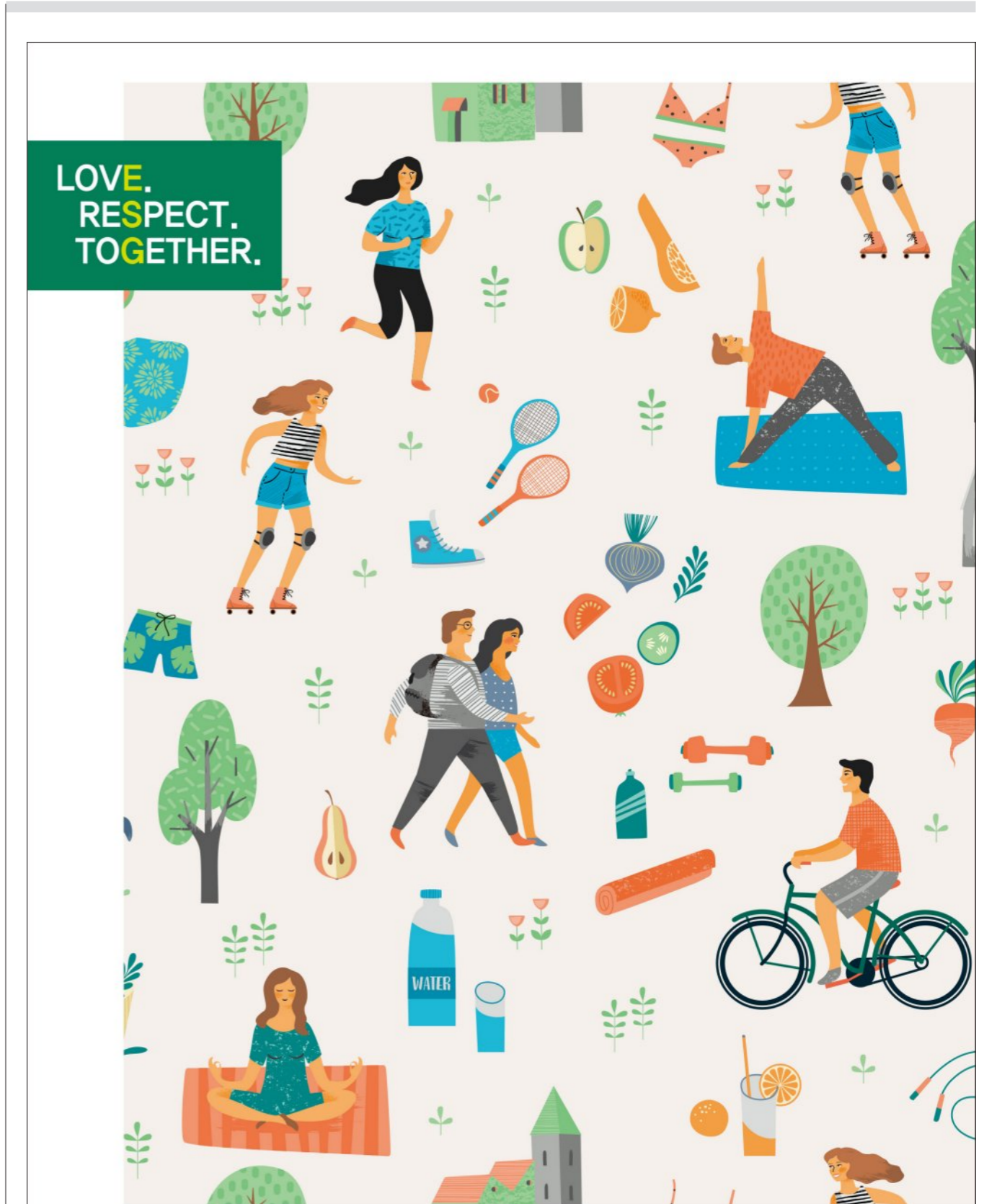
그러면서 “저는 비즈니스 목표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소외된 90%의 사람들을 위한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저희 회사의 임원들은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고,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강 대표는 “저희 회사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측정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CES 혁신상을 받았고, 현재는 성동구에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CCTV 카메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자들이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제 위기에서 큰 도전을 겪었다. 여러 번의 투자 실패와 인원 축소 위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업을 이어갔다. 신앙적 믿음은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저는 이를 통해 더 성장하고, 결국 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저는 경영자로서 매일 아침 경건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멘토와 영적인 지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의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며, 비즈니스가 저의 원래 목표인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교회 강단을 위한 읽기, 다니엘서 해석의 새 지평”

한국구약학회, ‘교회 강단을 위한 다니엘서 읽기’ 주제 송년학술대회

한국구약학회(회장 안근조)가 최근 서울 양천구 소재 한사랑교회(담임 황성수 목사)에서 ‘교회 강단을 위한 다니엘서 읽기’라는 주제로 제127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왕대일 박사(감신대 명예교수)가 발제했다.

◆종말론, 신정론(神政論)에 대한 다니엘서의 응답

왕대일 박사는 “다니엘서에 관한 해석은 많다. 신앙공동체의 정서에 따라서 다니엘서 독법의 결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다니엘서 본문에 관한 코멘타리나 강해, 다니엘서의 끝말을 특정 주제에 맞춰 묻고 불리고 푸는 작업은 참으로 많다”며 “그러나 해석학의 틀에서 교회 강단을 위한 읽기의 대안으로 다니엘서를 배우고 익히는 작업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니엘서 읽기를 회파·무시하거나, 다니엘 이야기를 신앙과 행실의 가치를 드러내는 예화로 삼거나, 다니엘서의 상징을 다룰 때 미래를 준비시키는 코드로 해독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으로 해석하면서도 묵시와 묵시적 사유의 복수성을 간과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강단을 위한 다니엘서 읽기는 다니엘서 해석의 새 지평이 된다”며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왕 박사는 “종말론은 신정론(神政論)

에 대한 다니엘서의 응답이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를 예언서의 한 자락으로 대했던 헬라어 구약성서의 외침에는 땅의 세력에 눌려 힘겹게 지내던 자들에게 ‘그날이 있음’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이겨내게 하였던 소망이 담겨 있다”며 “예루살렘의 폐망 이후 오랜 세월 시달려야 했던 포로살이에 눌려 있던 자들에게 다니엘서의 종말론은 해방의 정음(正音), 구원의 복음 이 되었다. 오늘을 견뎌낼 힘을 종말에서 찾았다”고 했다.

◆다니엘서, 지혜 텍스트로 읽어야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다니엘서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가, 에스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와 함께 성문서 범주에 든다”며 “히브리어 본문에서 다니엘의 자리는 에스더와 에스라 사이인데 에스더 → 다니엘 → 에스라 → 느헤미야 순으로 배치된 경전의 구도는 다니엘서를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야기로 읽도록 이끈다”고 했다.

이어 “다니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창 37-50장)와 함께 디아스포라 문헌의 본보기”라며 “디아스포라 글말의 주제는 지혜, 즉 ‘살아가기의 기술’이다. 낯선 시공간에서 소수자로 생존해 가야 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모든 지혜



제127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 토론 진행 현장의 모습. ©한국구약학회

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다니엘서의 지혜로운 자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한다. 다니엘서의 환상은 묵시로 펼친 우주 괴물 축출의 청사진”이라며 “다니엘서 독자들은 그 청사진을 음미하면서 삶의 위기를 삶의 정화로 씻겨냈다. 환상이 환호성이 되는 공명(共鳴)이 일어났다. 다니엘서를 지혜 텍스트로 읽어가는 감각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다니엘서, ‘역사적 묵시’

왕 박사는 “다니엘서의 또 다른 독법은 다니엘을 묵시로 대하는 시각”이라며 “다니엘서는 역사적 묵시다. 다니엘의 묵시는 하늘로의 여행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다니엘의 묵시에는 천사가 등장한다”

고 했다.

이어 “다니엘서는 하늘과 땅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시절에 그 어디에서도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죽음에 직면하는 자들이 쏟아지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위로를 주는 실체를 천사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의중에는 역사를 변형시키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념이 담겨 있다”며 “다니엘서는 마카베오 혁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니엘서 해석 위해 ‘수비학’ 이해해야

그는 “다니엘서 해석을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수비학(Numerology)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며 “흔히 ‘숫자풀이’라고도 불리는 수비학은 다니엘서 해석에서 일종의 걸림돌이다. 숫자나 기호로 표현된 상징은 묵시적 암호의 대표 수단이지만, 이 암호는 대체로 묵시의 상징을 자의적으로 사사롭게 풀어내는 수수께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다니엘서 본문에서 수비학의 사례에 드는 본문은 크게 셋으로, 다니엘 7장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단 7:25), 다

니엘 8장의 ‘이천삼백 주야’(단 8:14), 다니엘 9장의 칠십사레(단 9:24)라며 “7, 8, 9장의 숫자들은 다 같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간적인 차원이 아닌 시간적인 차원에서 찾았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하늘에서 찾았던 예언의 묵시묵과는 달리 다니엘의 7, 8, 9장의 숫자는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역사(시간의 연대) 안에서 찾았다. 역사의 흐름을 몇 개의 과정으로 수렴하면서 역사적 과정이란 원래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았다”고 했다.

더불어 “다니엘의 묵시에 담긴 숫자 상징은 지난 세월을 복기(復基 復舊)하려는 묵시적 노력이며, 다니엘의 묵시에 담긴 수비학은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을 수렴한다”며 “다니엘의 묵시는 박해받고 있는 경건한 무리에게 역사의 시간표를 되새기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연대가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된다고 주지시킨다. 성전의 훼파가 극심해서 유대인의 고통당함은 눈으로 다 볼 수 없을만큼 처절하지만 그 기간은 기껏해야 이제 반 이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견뎌야 한다. 그러하기에 현실을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마중물

왕 박사는 “구약의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의 마중물이 된다.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묵시는 요한계시록의 상징 숫

자, 기호, 표현, 종말론 등을 새겨가는 작업의 교본”이라며 “마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묵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두 책은 단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다.

이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이다. 신약에 인용된 아랍어 표현에 따르면 ‘마라나 타이다’며 “다니엘의 묵시가 전하는 증언-종말의 시간(정한 때), 종말의 과정(역사적 결정), 종말의 공간(대환란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케리그마에서 읽어 내야 한다”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다짐하는 마라나타만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그릇된 왜곡된 오도된 두려움에 싸인 파루시아 대망주의에 빠지고 만다”고 했다.

아울러 “파루시아의 때가 언제든 어떻게 임하든 그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며 “그 믿음에서 파루시아 마라나타 대망은 복음의 케리그마 안에서 창조적 긍정적 희망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샤야 박사(남서울대)를 좌장으로, 리규상 목사(기감)·오세조 목사(루터교)·임시영 목사(예성)·허신욱 목사(예장통합)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장요한 기자

당신의 환율은 잠들지 않는다

Hana FX Trading

국내 24시간 FX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글로벌 원화 거래 수요 발굴에 도전합니다.

‘더 신속하게’

신속하게 변화하는 FX 시장 환율을
클릭 한번으로 빠르게 체결

‘더 쉽게’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화면구성으로
환율조회부터 결제 업무까지 한번에 쏙

‘더 다양하게’

26개의 해외 통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
(소액 지정가 주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기업)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Hana FX Trading System은 하나은행이 기업은행 24시간 대표 환율계좌 운영중입니다. ※ 별도의 앱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환율조회부터 결제 업무까지 한번에 쏙 체결 가능합니다. ※ 환율조회부터 결제 업무까지 한번에 쏙 체결 가능합니다. ※ 환율조회부터 결제 업무까지 한번에 쏙 체결 가능합니다.

“그레고리 교부 ‘인간의 참된 만족, 하나님 누리는데 있다’ 강조”

한국개혁신학회, 제157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제157차 학술심포지엄 한국개혁신학회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교회(담임 박진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서 조용호 박사(그리섬교회)는 ‘교부의 인간론이 메타 시대에 던져주는 시사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의 인간론과 메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에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335-394)는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이단들로부터 니케아 공의회 결의를 지켜냈던 신학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레고리는 인간에 대한 물음표의 답을 인간 본질의 어둠에서 찾았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데오시스’였다”며 “그는 인간에 대한 물음과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말할 수 없다. 메타와 AI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따라가면 어느덧 인간이 또 하나의 창조주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이런 오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했다.

조 박사는 “그레고리는 인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누리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와 AI는 유포피아를 만들지 못한다.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매체”라고 했다.



학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한국개혁신학회

다”며 “과학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에서 인간 삶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했다.

어어 이재호 박사(아폴로신학대)는 ‘여호수아서 주석에 나타난 요하네스 칼빈의 예정론 언약론적, 교회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선택과 유기된 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택과 유기된 자들은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선택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이들의 선택을 확고하고,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유기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이들의 유기를 증거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해 교회는 언약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에 선택된 자로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성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회론 비교 연구: 예레미야 성경해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초빙글리와 함께 스위스 종교개혁 수행에 전력한 외롤람파디우스는 칼빈처럼 인생의 말년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에스겔, 요엘, 호세아 등을 해석하고 강의했다”고 했다.

박 박사는 “칼빈과 외롤람파디우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며 “외롤람파디우스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다”고 했다.

또한 “이에 외롤람파디우스는 첫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소리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설교를 중시했다. 둘째,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화심과 구원이 일어나는 공동체다. 셋째, 교회가 이 땅에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목자 삼아 그 아래서 자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박영일 박사(총신개혁신학연구원)는 ‘칼빈과 외롤람파디우스(1482-1531)의 교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형구 기자

튀르키예, 임신 중인 기독교 난민 여성 이란으로 추방 명령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튀르키예에 당국이 한 기독교 난민 여성을 이란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교회 활동으로 인해 체포된 후 자국을 떠나야 했으며, 현재 임신 중이어서 두 살 딸을 둔 어머니로, 이란으로 돌아 가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확인됐다.

CDI에 따르면 2015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 여성은 튀르키예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UNHCR은 2018년 9월부터 난민 신청 처리 및 등록 책임을 튀르키예에 이양한 상태다.

이 여성은 "자녀와 딸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어디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다. 12월 30일 이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면, 그들은 저를 죽일 것이다. 제발 도와주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튀르키예를 떠나려는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구금 및 이란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그녀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여성은 이란 내 지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체포 위협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추방 결정과 법적 대응**
CDI는 안전을 위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이 2010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교회 활동과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체포된 뒤 2014년에 이란을 떠났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에 당국의 망명 신청 거절 후, 이 여성은 여섯 차례 항소했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난민 지원 단체의 주드 시미온 대표가 전했다.

그는 "2024년 10월 30일, 또다시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서, 이 여성은 임신 중이

있고 2살 반 된 딸을 돌보고 있던 상황에서 체포 위기에 처했다"며 "당국은 11월 말까지 튀르키예를 떠나려는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구금 및 이란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그녀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앙과 가족의 분열**
CDI는 이 여성의 첫 남편이 그녀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지역 가정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이유로 2014년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미온 대표는 "그녀의 신앙 여정은 2013년 대학 재학 중 첫 번째 체포, 2014

년 가정교회 모인 도중 두 번째 체포를 겪으며 점점 더 위험해졌다"며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와 가족의 기독교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CDI는 당국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해당 여성의 집에 들어닥쳐 성경, 종교 팸플릿, 기타 신앙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를 위험한 '물품'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UNHCR 난민 지위 인정과 튀르키예 태도 변화**

CDI는 해당 여성이 이란을 떠나기 전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고, 변호사는 튀르키예에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UNHCR은 이 여성과 그녀의 세

남편, 딸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그녀의 망명 신청을 기각 거부했다. 시미온 대표는 "튀르키예 정부는 특히 기독교인, 쿠르드족, 그리고 기타 박해받는 소수 민족 난민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민 보호 메커니즘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I는 튀르키예가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프로토펙톨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 이외 지역에서 온 난민들을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튀르키예 내 난민 보호 수준은 여전히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방 우려와 국제적 침묵**

CDI는 난민 지원 단체에 따르면, 2018년 UNHCR에서 난민 업무를 이양받은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추방 명령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미온 대표는 "기독교 난민들은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난민 문제에 눈을 감고 있어 제3국으로의 영구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CDI는 튀르키예 내 종교적 소수 민족 강제 송환은 국제 보호 기준을 무시하는 사례로, 난민 보호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선교지 자산은 개인 아닌 공공의 자산”

기감 본부-필리핀 열방선교교회, '자산관리 양해각서' 체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최근 필리핀 열방선교교회(이하 ANMC, All Nations Mission Church)를 방문해 선교지 시설을 돌아본 후 선교지 자산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기감과 필리핀 ANMC간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교지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감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황병배 선교국 총무가 배석했다. 또 ANMC에서는 후원단체 대표 정재준 목사(성환교회), 박연용 선교사(과송)와 법인 대표 박연용 선교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 문구 작성을 비롯한 실무적인 준비는 기감 선교국 세계선교정책부 이강희 부장과 박연용 선교사가 맡았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에 앞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기감 필리핀선교 50주년 기념 회년선교대회'에 참석해 폐회예배 설교를 마친 후 곧바로 자동차 편을 이용해 3시간 동안 이동해 ANMC에 도착했다.

체결식에는 총정연회 박인호 감독과 감신대 총동문회장 김필수 목사(군산비전교회), 호남특별연회 직전감독을 비롯해 감신대 교장배 교수(선교학),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장 이상훈 목사, 감리회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이동성 목사, 행정기

획실 기획홍보부 황기수 부장이 함께했다. 또 ANMC 대학생 기숙사를 헌납한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와 총정연회 소속 목회자들, ANMC 사역을 오랫동안 후원해온 목회자들이 동행했다. 그리고 ANMC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리더들도 함께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황기수 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체결식에선 서명자들을 소개한 후 박연용 선교사가 ANMC 사역과 체결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한 모든 이들을 소개했다. 이어 정재준 목사-박인호 감독-김필수 목사-김정석 감독회장 순으로 인사말을 전한 후 김정석 감독회장과 정재준 목사, 박연용 선교사가 대표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마쳤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서명을 마친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또 한 번의 인사말을 통해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거듭 설명하고 깊은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먼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교사들이 맘 흘려 만든 귀한 선교지의 자산들이 공적재산, 곧 공공재산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이런 자리가 없었다. 선교 초기의 열정적인 사역으로 맺은 열매들(자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린(사적 소유) 사례가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감독회장은 "선교 후원자들을 대표한 정재준 목사와 박연용 선교사의 큰 결단으로, 선교지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임을 명시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며 "이를 시작으로

감리회의 모든 선교지에서 자산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감은 "물론 양해각서 체결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완결은 아니다. 선교지 자산은 선교사 개인, 후원자 또는 특정 후원단체의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교지에서 조성된 것이나 앞으로 생성될 자산의 관리와 유지에 관한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교지 재산에 관한 권리가 개인(선교사 혹은 선교지 현지인)이나 개교회에 있지 않고 감리회 본부와 선교지 법인체에 있음을 선언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덧붙였다.

체결식에 배석한 선교국 황병배 총무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제도 마련과 자세한 규정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양해각서에 표기된 선교지의 자산 소유와 관리, 유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선교지 자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열방선교교회가 관리하나 선교사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선교지 자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선교국과 열방선교교회 그리고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3. 선교지 자산의 유지 보수는 열방선교교회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선교국과 열방선교교회 그리고 후원단체 삼자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하는 데 힘쓴다.

기감은 2023년 10월 입법회의에서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을 재판범에 포함시켰다.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생겨난 재산에 대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후 올해 2월 23일 문화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지침까지 발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김진영 기자



김정석 감독회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등 기감 본부 관계자들이 필리핀 열방선교교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설립 60주년 기념 채플 드려



김현숙 연신원장이 축도에 앞서 광고와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기념 채플 후 로비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GIT 학생들이 포토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하 연신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아 최근 원두우신학관 예배실에서 기념 채플과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 채플은 김정형 신과대학 부학장의 사회와 손호현 연신원 부원장의 기도, 김영호 목사(대명감리교회 원로)의 설교, 김현숙 연신원장의 인사와 축도로 진행됐다.

기념 채플에서 연세대 신학과와 연신원을 졸업한 김영호 목사는 '첫째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서 김목사는 연세 신학에서의 6년을 회고하면서 동문들에게 연세 신학 발전기금에 동

참할 것을 요청했고, 대명교회 개척과 건축에서의 경험과 개척선교회 설립과 운영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회갑을 맞이한 연신원 공동체가 첫째로 할 일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날 연신원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

연신원은 이날 기념 채플에 이어서, 신학관 로비에서 다과와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연신원은 "기념 채플을 찾아준 동문들과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고, SNS 포토 이벤트를 진행하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연신원 설립 60주년을 기념했다"며 "이날 행사에는 연신원 교직원, 연신원 졸업 동

문들과 재학생들, 신과대학 학생들이 참석하여 연신원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연신원은 한국 최초의 신학대학원으로서, 1964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신학교육기금을 통해 설립됐다.

또 연신원은 2015년에 설립된 예하기관인 GIT(Global Institute of Theology)를 통해 세계 140여 개 나라의 기독교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다. 연세대 신과대학과 연신원은 2024년에 실시된 QS세계대학평가의 신학·종교학 분야에서 세계 41위, 국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EDIYA STICK COFFEE

우석이가 만든 커피 한 잔

COFFEE MIX

이디야 스페셜 골드블렌드 리치크레마 커피믹스

STICK COFFEE

이디야 스틱커피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EDIYA COFFEE

*제품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이플선교회 2024 송년기도회 “세계 선교와 대한민국 안정·평화” 기도

조이플선교회(대표 장현자 목사) 송년 기도회가 지난 5일, 타코마 삼일교회(담임 권상길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조이플선교회 회원들은 한 해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계 각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는 선교사들과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또 서북미 지역의 선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

이날 기도회에서 선교 보고를 전한 조호숙 일본 선교사는 일본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일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현자 목사는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월 중보기도회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송년 기도회로 회원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현자 목사는 지난 5월, 조이플선교회합창단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8개 우물을 기증했음을 보고했다.

장 목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차드에 기증한 7개의 우물은 모두 완공이 됐고,



조이플선교회 2024 송년기도회 참석자 기념촬영 ©조이플선교회

현재 케냐에 1개의 우물 설치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1월경에 완공 예정이다.

또 조이플 선교회원들이 3개의 우물을 추가로 기증해 이달 중 차드에 3개의 우물을 더 후원할 예정이다.



조이플 선교회가 아프리카 차드에 기증한 우물. ©조이플선교회

장 목사는 “조이플 선교회가 복음전파를 위해 아프리카 차드와 케냐에 11개의 우물을 기증함으로써, 어려운 백성들

에게 복음과 함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며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극단 이즈키엘의 새 뮤지컬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올해 연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극단 이즈키엘이 준비한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가 오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헐리우드 반스달 갤러리 극장(Barnsdall Gallery Theatre)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는 극단 이즈키엘이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보

이는 가족 뮤지컬로, 재미있고 화려한 무대를 통해 크리스마스에 관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난해 10주년 기념 공연 마론인형과 할리우드 프린지 연극 페스티벌 화제작 카덴자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즈키엘 극단이 다시 한 번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

이번 작품은 이즈키엘의 히트작 마루마을을 작곡한 황아름 작곡가의 음악으로 꾸며지며, NBA 프로농구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던 뮤지컬 배우 최원현과 디즈니랜드 파크 뮤지컬에서 토틀 역할을 맡았던 한예랑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 또한, 독일 베를린국제무용콩쿨 금상 수

상자인 현대무용가 전효인이 안무를 맡아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 공연은 할리우드 별문과 헐리웃에 위치한 반스달 극장에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단 3일간 열리며, 현재 티켓 판매가 진행 중이다.

2013년 창단된 이즈키엘 극단은 그동안 청년예수, 마루마을, 살로메, 문, 포물라3, 카덴자 등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다양한 뮤지컬과 연극을 통해 많은 감동을 선사해 왔다. 모든 공연 수익은 기독교 관련 사역에 기부된다. 김민선 기자

고 안성진 목사 가족 재단 주최, 제27회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



과거 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오는 12월 15일 오후 4시, 트리니티 루터란교회에서 개최

시애틀연향장로교회 창립 목사인 고 안성진 목사 가족 재단이 주최하는 제 27회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4시 트리니티 루터란교회(6215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에서 열린다.

청소년들과 음악을 사랑했던 고 안성진 목사의 송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3년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안성진 목사의 가족들과 서북미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 높은

음악회로 정평이 나 있다. 미 주류사회와 시애틀 한인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줄리아데 음대를 졸업한 박관빈 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다양한 음악 그룹들이 출연해 특별하면서도 최고의 연주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안성진 목사 가족 앙상블을 비롯해 벨뷰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립대 합창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지만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 참여가 가능하며, 모든 기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새생명비전교회, 연말 특별새벽기도회

새생명비전교회는 12월 16일부터 21일 까지 새벽 5시 15분에 본당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엡 6:18)”라는 주제로 연말 특별새벽기도회(2024 Year End

Daybreak Service)를 연다. 특별새벽기도회에는 이희문 목사, 윤대혁 목사, 노창수 목사, 권혁민 목사, 박은성 목사, 강준민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김민선 기자

LCD & BPS, 재정적 어려움과 긴급 지원 요청

Lugazi Community Day & Boarding Primary School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상황을 발표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식사비와 청구서 납부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지역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러 학교 측은 “우리나라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학문 및 교육의 우수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와 자립적인 삶을 강조하고, “도덕적

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완이 있고 자립적인 시민을 양성”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재정적 어려움은 학교의 운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지원이 없으면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식사비와 청구서 납부가 큰 부담이 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측은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시애틀형제교회, 12월 찬양예배 “후회는 멈춤이 아니라 시작”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12월 찬양예배를 개최한다.

‘후회는 멈춤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는 창세기 6장 6절의 본문으로 남현수 목사 설교하

고 정정인 목사 찬양을 인도할 예정이다. 바셀캠퍼스 빌딩1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날 찬양예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문의 : 425-488-1004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탈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제16회 인성 클린콘텐츠 정직 UCC 전국공모전 시상

국회의장상, 교육부 장관상 등 장관급 대상 13개 포함 35개 상 수여
“기독교 가치인 정직한 인성, AI 윤리, 미래 도전 정신 확산에 기여”

우리 사회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직한 인성과 건강한 윤리 의식 확산을 위한 제16회 인성 클린콘텐츠 정직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 전국공모전 시상식이 12월 7일 서울 중구 정화예술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상식은 예년과 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주최 측이 긴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정화예술대학교(총장 한기정)에서 수상자 150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안종배 회장), 한국정직운동본부(한택균 목사), 한국문화콘텐츠아카데미(회장 조태봉), KBS미디어(대표 이상우)가 함께한 올해 공모전에는 총 2,120명이 325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주최 측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교육부 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장관급 대상 13개를 포함하여 주관 기관장상과 주요 기관장상, 총장상 등 35개의 상을 수여하고 시상품을 전달했다.

올해 공모전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한세대학교 학생 5명이 ‘하지말고, 해주세 요라는 제목으로 출품한 작품이 수상했다. 주최 측은 “일상에서의 부정직과 정직 실천을 대비하는 상황극을 뮤지컬 기법으로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며 “누구나 쉽게 정직 실천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고 의미 있게 전달된 점이 뛰어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상은 한밭초등학교 가족의 작품 ‘정직데이스가 수상했다. 주최 측은 “학생이 스스로의 정직데이스를 스토리텔링 하여, 양심적이고 정직한 선택

을 하는 것에 대해 흥미롭게 영상화한 작품”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양심이 있고, 양심을 따를 때 결국 나를 속이지 않고 정직을 지키게 되며,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소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은 한빛유치원 꿈꾸유아학교 유치원생들이 함께 제작한 작품이 수상했다. 이 영상에서 유치원생들은 AI 감성로봇을 통해 정직의 의미를 알아보고, AI블록을 이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정직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그림과 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았다.

경기도 도시시상은 동아방송대 학생의 작품 ‘인공지능,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가 수상했다. 인공지능이 악용될 때의 위험성과 선용의 필요성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면서 공감을 갖도록 제작됐다. 이 외에도 송촌장로교회의 청소년부와 가족, 정암기독교학교 교사와 학생, 대전 새로남기독교학교 학생들도 정직과 인성, AI 윤리를 주제로, 교회와 일상생활을 연계한 창의적인 UCC 작품으로 수상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여수, 제주 등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 전문직, 실버 어르신 등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 직업군에서 응모했다. 또 가족과 학생들이 협업한 팀작품이 많이 출품됐고, 작품 형식도 동영상, 애니메이션, AI 영상 등 예년보다 다양화했다.

주최 측은 “본 공모전의 주제인 정직과 올바른 인성, AI 윤리, 희망의 미래 도전 의식은 성경적 가치이기도 하다”며 “이는 인류혁명 시대의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중요한 핵심



맨 왼쪽부터 안종배 회장, 윤은기 회장, 국회의장상 수상자들, 조태봉 회장(맨 오른쪽)



이날 시상식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가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 시국에는 더욱 중시되고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카네기홀에서도 단독 공연한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따라클로이스 합창단’이 감동적인 하모니를 선보였고, 윤현진 아라펠필하모니 예술감독의 성악과 10인조 여성으로 구성된 송촌장로교회의 ‘데인보우 색소폰 앙상블’이 성탄의 기쁨과 미래 희망을 주는 경쾌한 음악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이 공모전은 우리 학생들과 사회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고, 배움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교육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6년째 공모전과 시상식을 총괄해 온 안종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

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의 UCC가 세상을 정직하게 하고, 인공지능을 선용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 미래 사회를 희망차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경적 기독교 가치를 스스로 체감하고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수상자들은 이번 계기로 자신들의 노력이 미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수상자들은 “UCC를 제작하며 정직한 인성의 가치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특히 팀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며 상호 배려와 협력을 통해 인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정직과 인공지능 선용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픈도어 칼럼

고난받는 교회의 현황과 세계 추세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백성들 공격 받아
핍박이 종종 교회의 갱신과 부흥과 성장 가져오기도 해

해가 갈수록 고난받는 교인들의 수효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약 2천만명의 교인들이 심한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교인이 핍박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의 예언적 경고와 일치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과 악령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야수처럼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벨트 지역에서는 호전적인 근본주의 이슬람이 날이 갈수록 기세를 부리며 교회와 교인들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티오피아 동북부 지역에서 이슬람의 테러 세력들이 준동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교회 지도자를 거짓 증거와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추방하거나 감옥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2018년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교회인 삼자교회와 비등록 교회인 가정교회는 다양한 통제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삼자교회

는 국가에서 정한 종교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심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삼자교회 목사가 외부 인사를 만날 시에는 사전에 지역 종교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목사는 한국인 목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앙 서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자교회 목사의 개인 휴대폰은 번호가 자동으로 보고되고, 지역 당국에 입력되어서 위치 추적과 심지어 녹화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밝힌 대학 교수들은 강의안과 강의 내용까지 항상 감시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의 신규 법규정을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루빠 조직의 길거리 단속과 검문, 지역 공안 당국의 예기치 못한 가택수색 등은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고, 지하에서 활동하던 중국과 연계된 교인들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백 명의 교인이 체포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신앙 경주에서 이탈

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육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타협과 사역에서의 이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종종 교회의 갱신과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와 교인은 그동안 나타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 운동과 아프리카 복음화의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와 교인들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티오피아 동북부 지역에서 이슬람의 테러 세력들이 준동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교회 지도자를 거짓 증거와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추방하거나 감옥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18년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교회인 삼자교회와 비등록 교회인 가정교회는 다양한 통제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정한 종교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심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삼자교회 목사가 외부 인사를 만날 시에는 사전에 지역 종교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목사는 한국인 목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앙 서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자교회 목사의 개인 휴대폰은 번호가 자동으로 보고되고, 지역 당국에 입력되어서 위치 추적과 심지어 녹화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밝힌 대학 교수들은 강의안과 강의 내용까지 항상 감시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의 신규 법규정을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루빠 조직의 길거리 단속과 검문, 지역 공안 당국의 예기치 못한 가택수색 등은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고, 지하에서 활동하던 중국과 연계된 교인들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백 명의 교인이 체포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신앙 경주에서 이탈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의 영적 교훈과 유산을 서서히 상실하고,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체인 핍박받는 교회와 교인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루빠 조직의 길거리 단속과 검문, 지역 공안 당국의 예기치 못한 가택수색 등은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고, 지하에서 활동하던 중국과 연계된 교인들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백 명의 교인이 체포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신앙 경주에서 이탈

김성태 목사(충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내달 13~17일 개최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진행하는 ‘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법 금식기도원에서 ‘분단 80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 7:3)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탈북민 강철호 목사(새터교회 선교목사), 김보민 집사, 이선의 사모를 비롯해 김재동 목사(하늘교회 담임), 강동안 교수(동산대학교), 문창욱 목사(부산큰터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송기호 선교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에릭 폴리 및 현숙 폴리 목사(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및 대표), 이규 목사(시티미선교회 담임), 이기복 교수(전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선규 목사(대전 즐거운감리교회 담임),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목사),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자카테데), 이흥수 목사(선사인교회 담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S), 최광 선교사(황금종달복합교회)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나선 예정이다.

13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총 7개는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참여하게 된다. 컨퍼런스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되어 전국과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등록비는 12월까지 8만 원, 내년 1월 1일부터 9만 원이며, 목회자, 선교사, 사모, 신학생, 65세 이상 참석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다. 탈북민은 1만 원(esther7000@naver.com) 이지희 기자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박해로 도피한 이란 기독교인들, 조지아 당국에 망명 신청 거부 당해

신념 말하려하자 거부... 기독교 신앙의 다양성 인식하도록 해야

박해를 피해 달아난 이란 기독교인들이 조지아 당국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르지(Darzi)는 기독교인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지아 관리들과 두번째 면전에서 거부당했다. 그는 질문한 내용이 정교회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말하려고 했을 때, 그는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르지는 "(면접관은)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 번 저를 막았다. 저는 '제가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느꼈고, 그들이 면접 전에 분명히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고 주요 인권 단체가 편찬한 공동 보고서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아티클18(Article18), 세계기독교연대

(CSW), 오픈도어, 미들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이 최근 발표한 이 보고서는 모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피한 이란 기독교인들이 인근 조지아에서 망명을 거부당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 거부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이유다.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조지아 이민국이 망명을 신청한 1천여명의 이란인 중 1% 미만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난민 신청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을 희망은 거의 없으며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다"라며 "조지아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여러 개인은 이미 터키와 같은 이웃 국가에서 수년간 난민으로 지냈으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 중 5분의 1이 이란인이다. 터키가 이란

망명 신청자의 가장 흔한 목적지이지만, 터키의 소수 종교에 대한 조건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이란인들이 조지아와 같은 대체 국가를 찾았다.

이란 당국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개종자들은 여전히 체포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에 반하는 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어 성경을 소지하거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불법이다. 개종자거나 개종자 지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종종 국가 안보 혐의로 구금된다.

보고서는 조지아 인구의 약 85%가 정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신청이 거부된 이유 중 하나가 "조지아 정교회와 아닌 다른 기독교에 대한 편협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망명 변호사에 따르면, 난민 신청이 거부된 또 다른 이유는 조지아가 이란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



©Sina Drakhshani/ Unsplash.com

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자 파젤리 목사는 조사관들에게 2024년 7월 조지아 비밀 기관 회의에 소환당해 조지아 당국이 '외교 관계 관련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의지가 '난민 협약에 대한 의지보다 더 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파젤리 목사는 "그들은 외교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외교 관계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젤리 목사는 이 모

임에서 "교회를 타고 5명 이상의 모임을 삼가하고 어떤 통신사라도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목사의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보고서는 2023년 조지아와 이란 간 무역이 공식적으로 2억 7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익명의 변호사는 "조지아 정부에 이란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작은 나라이고 큰 이웃(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그 이웃의 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란 기독교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원에 갈 때마다 (조지아) 이민국은 법원에 기독교인은 이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이 이란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다르지의 경우, 그는 조지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거주권이나 보훈을 얻을 수 없

어 수 없었다. 그는 현재 망명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지는 "1년 안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항소는 6개월 후, 두 번째 항소는 또 6개월 후에 할 것 같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옹호 단체는 보고서에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개인의 개종이 진짜인지 평가할 때 "기독교 신앙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이 단체는 "망명 신청자가 귀국할 경우 박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란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참조하도록 권고했다.

이 단체들은 조지아 당국에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재정착을 위한 새롭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열라"고 촉구했다. 이명경 기자

“2024년 美 성경 판매량, 지난해에 비해 22% 급증”

올해 10월 말까지 미국 전체 인쇄 도서 판매는 1% 미만으로 증가했지만, 도서 추적 사이트 '서카나 북스캔'(Circana BookScan)에 따르면 성경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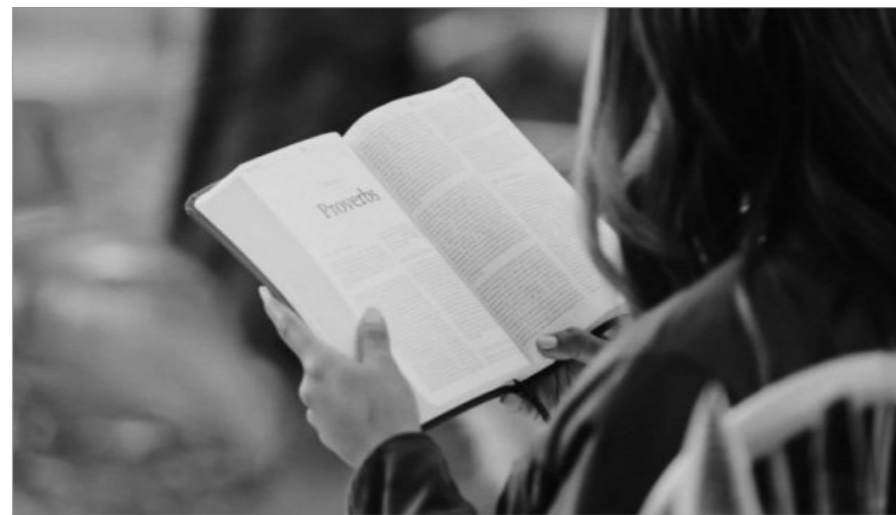
북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1천4백20만 권의 성경이 판매되었고, 올해 첫 10개월 동안 판매량은 1천3백70만 권에 달했다고 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출판사들은 불안감 증가, 희망에 대한 탐구, 매우 집중적인 마케팅과 디자인 등이 좋은 책에 대한 수요 급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 제프 크로스비 회장은 WSJ에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감을 경험하거나 자녀와 손주를 걱정한다"라며 "그것은 인공지능, 선거 주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어야 하는 확산에 대한 욕구를 키운다"고 했다.

성경 디자인 관련 웹사이트인 렉티오(Lectio.org)의 창립자인 J. 마크 버트랜드는 성경의 틈새 시장 마케팅 역시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많은 독특한 사람들이 성경 마케팅에 관



©Unsplash/Joel Muniz

심을 갖고 성경 공부에 대한 모든 변덕에 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틸데일 하우스 출판사의 에이미 심슨은 특히 Z세대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욱 견고하게 느껴지는 것을 찾고 싶어하는 세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커(The New Yorker)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인상적일지 몰라도 성경은 매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바나

는 미국의 세속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미국인 10명 중 9명, 즉 88%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0년 전에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미국인의 비율이 92%였다.

미국의 성경 소유자들은 평균적으로 3.5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4%는 6권 이상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에리조나 기독교 대학교 문화연구센터 연구 책임자인 조지 바나 소장은 미국 세계관 연구에 대해 논

평하면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회에서도 성경적 기독교를 고수하는 경향이 약화되면서 영적 공백에 채워 있다"면서 "비극적인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회가 이 문제를 대체로 무시했다"면서 "교회 참석, 성경 판매, 기부와 같은 지표가 안심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 연장자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무례하게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모, 교사, 목사 및 기타 문화 지도자들 앞에서 경험하는 진정성과 성실성의 부족에 대한 반응이다. 아이들은 때때로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어른들을 무시해야 한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바나 소장은 "아이들이 모순되는 가르침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그들이 삶의 철학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며 "젊은이들은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삶의 원칙이 확인되고 예시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삶을 바꾸는 진리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명경 기자

美 중부사령부 “시리아 중부서 이슬람국가 표적 75개 정밀 공습”

“이 공군도 시리아 내 수십 개 목표물 공격” 보도도

미국 군은 시리아 반군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8일(현지 시각) 시리아 중부에 있는 이슬람국가(IS) 기지와 대원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문을 올려 “우리 부대는 IS 기지와 무장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기간 동안 B-52(전략폭격기), F-15(전투기), A-10(공격기)을 이용해 75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리스트 그룹의 작전 수행을 막고 IS가 현재 상황을 이용해 시리아 중부 재건을 시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중부사령부는 “시리아의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도 여내 동맹국 및 파트너

와 함께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의 작전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국영 칸TV뉴스는 이날 이스라엘 공군도 시리아 내 수십 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시리아 내 대공 미사일 시스템, 탄도 미사일 생산 시설 및 저장고, 대공 방어 시스템이었다.

칸TV 뉴스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 상공에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국방 소식통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매우 집중적”이었으며, 수십 대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이스라엘 적대 세력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전략 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박광은 기자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Y SOUL

모두와 동행하는 서울,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생계돌봄

서울디딤돌소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주거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2)

안정적인 내 집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의료건강

병원 안심 동행

병원 방문부터 진료, 귀가까지
아플 때 힘이 되는 서울!



교육문화

서울런 (Seoul Learn)

공부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교육 걱정 없는 서울!



안전

안심벨 '헬프미'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범죄와 사고 걱정 없는 서울!



사회통합

약자동행 공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한울타리,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

스마트 서울뷰에서
[약자동행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자와의도행



비상계엄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검토 중”

이상민 전 장관 등 4명 출국금지 조치 완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과 관련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설명하며, 수사 독립성을 분명히 했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광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하여 전원을 입건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



우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해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중수 본부장은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는 인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상태다.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수사 주도권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거절했으며,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 주체”임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별개”라고 했다. 야권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근거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으나, 수사 인력과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추후 일반특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비상계엄 상설특검안, 법사위 소위 통과... 수사 대상 확대

한덕수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 10일 본회의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중 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특검법 발의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초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게임사령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 확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건을, 한덕수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을 통한 내란 모의 가담 혐의를,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동조 행위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실시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대상 포함을 “여당을 비상계엄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지연할 경우 특검 출범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국힘 중진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 밝혀야”

4선 이상 의원 긴급회동... “벚꽃대선 필요” 의견 나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동을 가졌다. 여당 소속 4선 이상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여 정국 수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동 직후 김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만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 대선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최소한 벚꽃대선이 되

야 하며, 이는 국내의 상황을 안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거취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시기를 밝혀야 한다”며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 3자 회담에 대해서는 “수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됐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원내대표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온 그가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내대표 사퇴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윤상현 “윤 대통령 손절·용도 폐기는 비겁한 정치”

김재섭 의원에 “국민 평가 달라질 것... 비겁한 정치 안 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언하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배승희 변호사의 생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따르면, 전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불참한 김 의원은 자신에게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윤 의원은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했다. 당시 많은 욕을 먹었지만, 1년 후에는 윤상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과거 경험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 당장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 의원에게 “우리는

윤 대통령을 모셔 온 사람들이다. 지금 손절하고 버리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명예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전남 열린 국민의힘 비공공 의원총회에서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해명하고, 법적 심판대에서 명예롭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

국회의장 “예산안 논의 지연, 국회 책임 아냐... 여야 협상이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최 부총리는 예산안 심사의 정상화를 요청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현재 비상계엄 상태에서 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 체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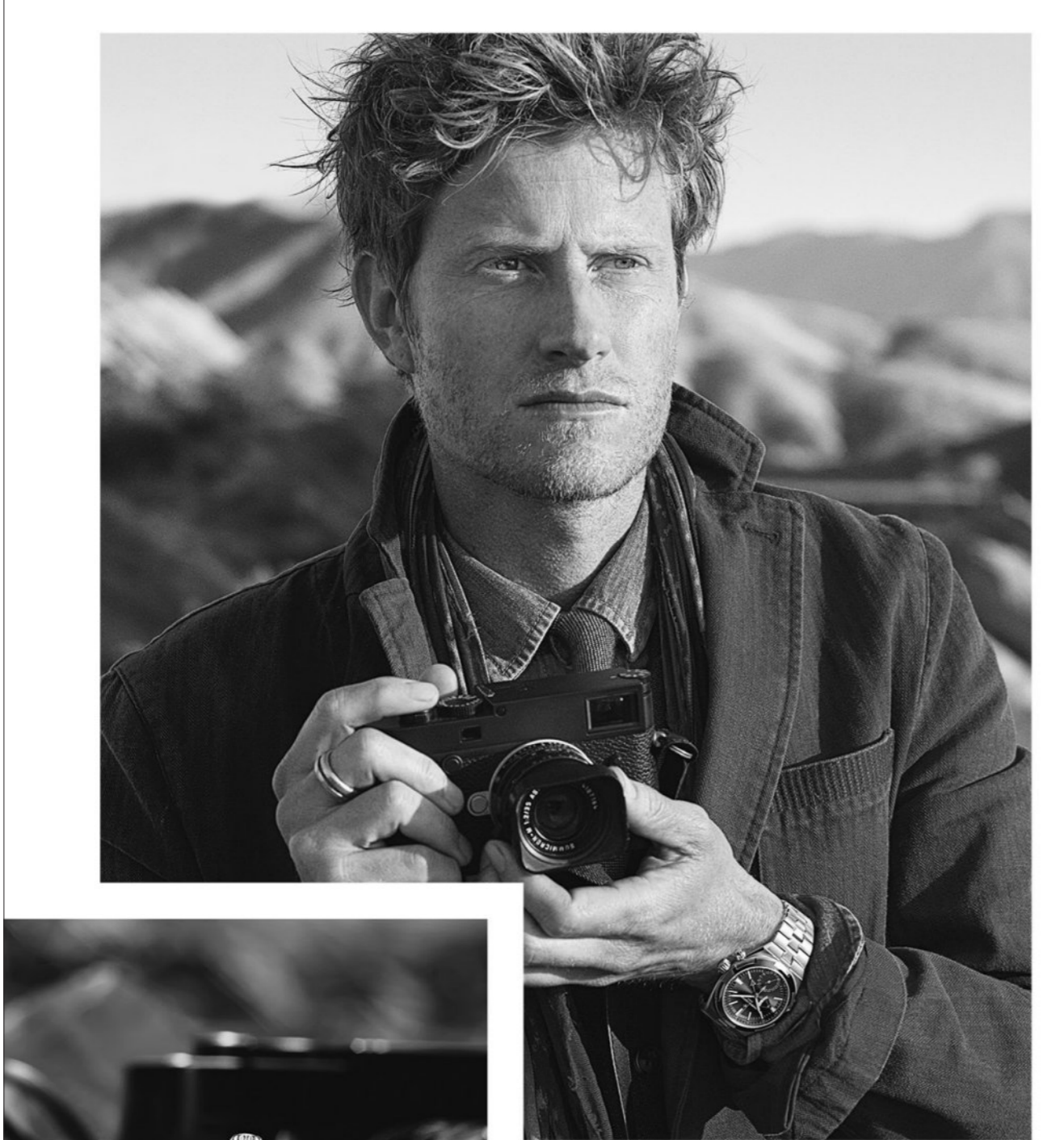
적 협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국회 의장 주도의 예산안 협상보다는 여야가 직접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남 관계부처와 합동 성명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빨리 확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며 총 4조 8000억 원의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쉽게 타결되는 것은 어려워 것으로 보이며, 정국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용국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태로 인해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기획재정부가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처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가구 평균소득 7185만 원... 재산소득 증가율 역대 최대

고금리 영향으로 재산소득 28.1% 급증... 1분위 소득도 7.1% 증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7185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조사 결과, 가구소득의 주요 구성요소인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사업소득은 1272만원으로 5.5% 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산소득이 28.1% 증가하며 2012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이자율 상승의 영향으로, 예금·적금의 만기 도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소득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 가구가 전체의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더욱 증가한 수치다. 뒤이어 1000만~3000만원 구간이 20.1%, 3000만~5000만원 구간이 19.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가구는 3000만~5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25.9%)을 보

였고, 40대(32.4%)와 50대(32.9%) 가구는 1억원 이상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0세 이상 가구는 1000만~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다른 분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고

령층 일자리 공급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이 42.9%(646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근로소득이 27.0%(406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 6602만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69.7%(1억1579만원)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소득에서 5분위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46.2%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321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공적연금·사회보험료(440만원), 세금(430만원), 이자비용(260만원)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이나래 기자

반도체 특별법 추진 중단, 정치적 혼란 속 산업 지원 공백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갈등 속에서 논의가 멈추며, 대규모 프로젝트와 첨단 반도체 개발 지원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국 내 공장 건립 같은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연구개발(R&D) 중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투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으며,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전반이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국내 상황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10조 엔(약 9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중국도 역대 최대인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지원 공백은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

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논의가 중단되면서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장기 전력 공급 대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고 미국 정부와 보조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국내 정치권의 지원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관세 리스크와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철도노조 파업 5일째... 코레일 노사 교섭 불투명

노조 "인력충원·임금체불 해결 시급"... 사측 "내년 임금 선결정 수용 불가"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5일차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본급 인상과 체불임금 해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철도노조가 코레일 2급 이상 관리직급 직원들의 올해와 내년 기본급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임금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레일의 재원은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조래할 경영진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2급 이상 임금 동결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

했다. 반면 한민희 코레일 사장은 "노조의 요구는 해당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임금 교섭권을 넘어 내년도 임금까지 미리 결정하라는 요구는 공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일 бри핑에서 "파업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철도 노사 양측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나래 기자

호주,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규제가 될 예정이며, 기술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약 45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해당 법안을 "젊은 세대를 소셜 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이 온전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DI는 법안은 상원에서 34대 19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의 최종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행은 최소 12개월 후부터 이루어지며,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지는 통신부 장관과 인터넷 규제 기관인 eSafety 커미셔너가 결정할 계획이다. CDI는 호주 정부가 연령 확인을 위해

생체 인식 및 신원 확인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며, 이를 관리할 책임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지털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VPN(가상사설망)과 같은 도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CDI는 법안이 게임이나 메시징 플랫폼, 또는 계정 없이 접근 가능한 유튜브(YouTube) 같은 사이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CDI는 일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많은 호주 부모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옹호 단체의 에이미 프리들랜더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중독성 있는 기기를 허용하거나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에 안도감을 표했다. 최승연 기자

CDI는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소셜 미디어 위험을 해결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어린 이들이 더 규제에 느슨한 온라인 환경으로 몰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oogle, Meta, TikTok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법안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며, 국제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소년 단체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위험을 이해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I는 호주의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미국 유티유 등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었으나 VPN을 통한 우회나 법적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CDI는 호주의 이 새로운 규제 모델은 글로벌 디지털 정책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기술적,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시리아 반군, 다마스쿠스 점령... 아사드 정권 붕괴

정부군 사기 저하와 부패로 저항 없이 투항, 아사드 대통령 러시아 망명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막을 내렸다.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의 진격 과정에서 거의 저항하지 않고 투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진격에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전쟁 감시단체인 시리아관측소에 따르면, 정부군 병사들이 군복을 벗어던지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이와 유사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널리 퍼졌다.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정부군이 버리고 간 다마스쿠스 검문소가 포착됐다. 검문소에는 빈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바닥에는 버려진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검문소 벽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사드 대통령의

대형 포스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정부군의 급격한 붕괴 배경에는 만연한 부패와 극심한 사기 저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대다수가 징집병으로 구성된 정부군 내부에서는 저임금과 부패한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SNS에는 휴가를 얻기 위해 뇌물을 요구받거나 약탈을 강요당한 사례들이 다수 제보됐다. 일부 장교들은 병사들의 식량을 착복하거나 근무 중 음주를 일삼기도 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군 월급을 50%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미 병사들의 신뢰를 잃은 뒤였다. 시리아 전문가 그레고리 워터스는 부패, 탈영, 내부 개혁 실패, 외국군의 중동 복합적 요인이 정부군의 전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흥은혜 기자

특히 러시아의 조연으로 고위 장교들의 전사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 하급 장교들을 배치한 관행이 확산되면서, 반군의 공세 시 지휘부가 부재한 상황이 빈번했다고 워터스는 지적했다. 반면 이번 진격을 주도한 이슬람주의 연합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HTS)'은 시리아 북서부 이дли브주에서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력을 강화해 왔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에밀 호카임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전투의 기세는 병력이나 능력이 아닌 심리에서 비롯되며, 반군이 심리전에서 승리했다"고 평했다. 베이루트 카네기 중동센터의 예지드 사이그 선임연구원은 내전이 소강상태였던 지난 4년간 아사드 정권이 군 개혁을 방지한 점과 러시아, 이란 등 우방국의 지원 감소가 정부군 붕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흥은혜 기자

구미의정원 활동수
반노의이 의기중전 손기정 남승훈 양선수 우송 축하
건국헌정 70주년 기념 '活命水' 내구력 신장 건강 개선 위한 위상에서 배태된다
건강한 조성을 목표로 하고 다같이 위정자를 건전케 하기 위하여
활동수를 보급한다

救急胃腸藥
活命水
수명활
수명활
服 用 합 시 다

孫基顯、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體力、堅忍不拔之耐久
力に根源은 오직健全胃腸에서
胚胎된다 健康朝鮮을目標하고
다 갖기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여

地帶五町京和府城京 房藥和同 式株
九一七二光新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서양 문명과 현재의 문화적 위기, 그 해답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도널드 스투잇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어떻게 서구 문명을 구원할 것인가?(How do we save Western civilization?)를 최근 게재했다. 스투잇 박사는 저명한 교육자, 목사, 작가이며 현재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미국의 서부 지역이 변화를 겪어왔듯, 서양 세계 전체도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더글러스 머레이는 그의 저서 'War on the West'에서 이를 "서양에 대한 전쟁"이라고 칭하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서양 문명의 뿌리와 그것이 만들어낸 선한 것들에 대한 문화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머레이는 이 전쟁이 보수 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좌파가 서양의 모든 제도를 공격하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양 세계는 "해체"와 "갱신"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문명은 단지 법률과 제도, 경제를 넘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문화적 질서이다. 그러나 현대 서양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뒤집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 제도, 생물학적 성, 전통적 도덕성, 유대-기독교 전통 등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서양 문명의 기초는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 형성되었다. 유대인은 도덕적 기반을, 그리스와 로마는 철학적/법적 기반을, 기독교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 성경은 이 문명의 핵심 문서였으며, 중세에는 이를 "서구 문명"이 아닌 "크리스텐담"으로 불렀다.

서양 문명이 준 선물은 무수히 많다. 단일신 개념, 범치주의,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개념, 노예제 폐지, 경제적 자유와 번영, 과학적 탐구와 의료 발전, 그리고 교육 제도와 대학의 탄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서양 문명도 결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독재 체제, 그리고 인종차별/사회적 무지와 같은 서양의 일부 유산은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

◆서양 문명의 현재 위기
오늘날 서양 문명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내부의 도덕적, 사회적 퇴보다. 신앙을 잃고, nihilism, 물질주의, 세속적 자유주의 같은 새로운 믿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명에 대한 내부의 공격이다. 서양 문명을 가르치는 대학 과정은 줄어들고, 전통적 가치들은 조롱받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적 아웃사이더로 몰리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

1.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목소리: 진리를 옹호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맞서 진리의 진실성을 주장해야 한다.

잘못된 세계관과 인간 번영에 반하는 문화적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전수: 역사학자 한나 아렌트는 "문명은 매 세대마다 야만인들에게 짐부담한다. 이 야만인들은 바로 아이들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서양 문명의 가치를 전수하며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
3. 신앙으로의 회복: 서양 문명을 이끈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속적 진보주의나 철학적 물질주의는 문명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와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요청
목회자들은 복음과 성경적 진리를 담

대히 선포해야 한다. 지금은 서구 문화를 다시 복원할 때다. 절망하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예레미야의 경고와 현대적 교훈
고대 유대의 몰락을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말은 오늘날 서양 문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내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서양이 다시 문명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서양 문명이 다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기초로 돌아가는 것, 즉 진리, 가족, 그리고 신앙으로의 복귀가 필수적이다. 즉,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승연 기자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방법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아인테너셔널(CDI)은 파멜라 엡스타인 킹 박사와 질린 웨스트브룩 박사의 기고글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Helping those we love to find hope when they have left religion and have lost hope)'를 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킹 박사와 웨스트브룩 박사는 Thrive

Center for Human Development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1996년 아동 및 청소년 발달 연구 센터(CRCAD)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풀러 신학교의 심리학 및 결혼 및 가족 치료 학교 내에 설립되었다. 주로 인간의 번영과 타인을 위한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현대 사회가 전통적인 신앙 체계에

서 점점 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기관에 대한 환멸, 종교 공동체에서의 트라우마, 혹은 영적인 anchor(지지 기반)의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가치, 낙관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희망의 위기
희망이 없는 상태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하버드 정치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하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최근 2주 동안 "긴장되고 불안하며 신경이 곤두선 상태"를 느꼈다고 답했으며, 약 절반은 "우울하거나 절망적"이라고 느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약물 남용, 과식, 기타 위험한 행동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대처 메커니즘으로 이어진다.

신앙에서 떨어진 이들에게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제시했던 체계의 상실인 소외감과 절망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했던 영적 틀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표류하는 기분을 느낀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희망은 단순한 낙관론 이상의 것이다. 희망은 더 나은 결과가 가능하다는 믿음, 성공이나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정서적, 신체적 건강, 회복력, 심리적 안녕, 심지어 의사 결정에까지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접하는 일은 종종 불가능해 보인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절망감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반응적으로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때로는 신앙이나 기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희망을 복돋는 일은 간단한 해결책이나 추상적인 격려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는 열려 있고, 공감하는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호기심과 경청으로 시작하기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도록 격려하길 바란다. 의미 있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존재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 가장 충족감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었다고 느꼈나요? 삶에서 고통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강점과 인간관계를 떠올리도록 돕기
그들이 과거에 극복했던 어려움이나 성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가족, 친구, 멘토와 같은 관계가 어떻게 그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제공했는지 이야기해 보길 바란다.

◆환경적 및 인지적 요인 다루기
그들의 일상 환경이 희망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지 탐구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이 그들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끼는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지 탐구하는 것이다. 희망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격려하길 바란다.



파멜라 엡스타인 킹 박사 | 질린 웨스트브룩 박사

◆새로운 의미의 원천 탐구하기
종교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도 초월감은 여전히 중요하다. 자연, 예술, 지역 사회 봉사, 혹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믿음을 통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문적인 도움과 자원 제공
심각한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립 자살 예방 핫라인은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심리 치료 옵션을 검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추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누군가가 희망을 다시 찾도록 돕는 일은 믿음을 강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목적의 원천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대화, 함께하는 경험, 단순한 동행을 통해 그들이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희망을 복돋는 일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치유에도 기여한다.

최승연 기자

1946년
조용하지만 커다란 혁신이
한화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동안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하는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 글로벌 테크 기업 Need 연계 암호화 시스템 제공

그리고 한화생명이 이끄는 보험의 혁신은
시그니처 암보험, The H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혁신으로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유혹을 느낄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매트 윌리스(Matt Willis 사진)의 기고글인 '유혹을 느낄 때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How to reset your mind when you're feeling tempted)'을 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매트 윌리스는 Courage Recaned의 창립자이며 크리스천 형제들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유혹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지만, 특히 성적 유혹의 경우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경험하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

먼저, 성경의 저자들이 성적 죄의 끈끈한 유혹에 너무나 잘 익숙했다는 점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속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디모데전서 3:11)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로 생각하거나 여러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린도전서 3:18)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우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디모데후서 2:22)

최소한 "도망치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기, 기회로부터 도망치기.

종종 유혹을 경험할 때 저는 기도 걷기를 한다. 걸을 때 모든 기술 기기를 집에 두고 나가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행동은 환경(책상에 앉아 있는 것과 기회) 든 기술 기기를 집에 두고 나가는 것 모두에서 도망치는 역할을 한다. 기도함으로써 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제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대로 방황하는 것을 막고 있다.

보통 저는 유혹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아내와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성적 유혹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유혹의 물결이 사그라질 때까지 도망치면서 동시에 제 마음을 진리로 적극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치유의 여정을 진행하면서, 특히 행동이 충동적일 수 있는 해독 단계

를 지나면,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의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제가 항상 혼자 집에 있을 때 유혹을 느낀다면, 아마도 이는 제 영혼이 깊은 교제를 갈망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만약 불안할 때 성적 유혹을 느낀다면, 아마도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신뢰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함께 불안을 처리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도록 저를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절망감을 느낄 때 유혹을 느낀다면, 아마도 제가 희망을 두는 곳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다. 또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가지신 잠재력을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삶이나 일 등에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유혹이 왔을 때 사그라들 때까지 도망치길 바란다. "도망치는" 동안, 회복의 바퀴의 세 가지 축 중 하나를 추구하길 바란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면서, 유혹이 닥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로 갈망하는 것을 진단하는 데 점점 더 빨라지고 능숙해질 것이다. 일시적인 만족으로 감정을 마비시키기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향해 직접 달려갈 수 있다.

최승연 기자

국가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많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도자는 정치나 사상면에서 건전하고, 의에 대한 용감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시민의 권리나 삶의 가치를 높이고, 통치가 아닌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자세를, 그러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여 용기있게 행동하는 일을 한다. 일반인보다 한발 앞서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해피하게 생활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군주가 훌륭한 지도자라 했다. 시끄러운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군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쁜 국가 지도자는 항상 국민들을 위해 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 행사에 치우쳐 독재자 노릇하며, 돈이나 명예를 누리기 위해 탐욕스런 행동을 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며, 이를 위해 국민이나 시민들을 힘들게 하며, 전쟁을 일으켜 생명을 말 할 것도 없고, 재산을 잃게 만든다. 또, 그런 지도자를 지지, 동조, 방조하는 것 역시 나쁜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훌륭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성경말씀으로 이끌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교회 지도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자신보다 타인, 특히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섬김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을 잘 전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훌륭한 교회 지도자의 예를 들기 위해서 최악의 지도자였던 독일의 히틀러를 말하고자 한다. 그는 1차 세계대전 후, 뛰어난 운동선수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숨에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독일 국민의 우수성을 한껏 드러내며 최고의 인기 절정을 이루었다. 그 결과, 독일 국민, 특히 신학생 포함 기독교인들 70%가 나치즘을 지지했고, 극우들은 그를 신격화 하기까지 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오셨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독재자가 되기 시작했고, 이를 눈감고 동조하는 독일 일반인들과 기독교인을 필두로 안으로는 유대인 학살(Holocaust)을 감행했고, 밖으로는 폴란드 같은 이웃 국가 침공을 시작으로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학자 칼 바르르트다. 그는 1933년, 독일의 바르멘에서 바르멘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Barmen)을 했는데, 그 선언은 정통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전통적 교회관을 유지한다는 선언이다. 이 바르멘 선언으로 바르트는 교수직을 잃기도 했고, 최후 독일 밖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도 유사한 운명을 맞아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유니온 신학교와 시

카고 대학교 신학부에서 교수생활을 하였다.

신학자 본 회퍼는 히틀러를 미친 개로 여겨 암살계획에 가담하다 체포되어 결국 1945년 전쟁 끝의 3개월을 앞두고 사형을 당했다. 인간을 신격화하고, 인간주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고 받들던 극우 기독교 성향과 이를 뒤에서 지지하던 독재자들이 날뛰던 세상에서 바르르트나, 틸리히 같은 학자들은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교회를 지키고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의 1세기 전, 독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예를 들어 살펴보았지만, 요즘은 우리 사회를 돌아 보면 지지하고 싶은 지도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사회만의 현상을 말하는 것만 이 아닌 전 세계를 통틀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같은 경우, 능력있는 줄로 믿고 어느 정치인을 지지했는데 일하는 것을 보면 영 엉망이다. 눈앞에서 표심 얻으려 별별 공약을 다 내어 놓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국민을 속여 영광을 얻으려 하는 관행들이 지식, 과학과 이성이 발달된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지자들이 사람 볼 줄 몰랐던 결과다.

교계에서 소위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 인사들 역시 제 할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옳다 그르다 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시대 왕궁에서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했어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왕궁에 초청받아 먹고 마시는 일에 도취되어 우상 숭배에 대한 질타성 말을 한마디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은 왕궁에 드나드는 인물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직분과 능력을 망각,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비위맞추기에 정신을 썼던 것과 같다. 한국 같은 경우, 역대 부당한 정권에 교회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로부터 비난 받은 일들이 있었다. 교회 사이즈가 크기만 하면 크다는 이유 하나로 어김없이 지도자처럼 등장하여 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성경적 지도자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매우 드문 예지만, 어느 원로목사는 불의로 정권잡은 자들이 미국 정부와의 회담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행을 요청하자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잡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가 고난을 당한 일도 있다. 이런 분이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성경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리스도는 권력력을 하는 자들을 주먹으로 내리 치셨으며, 부자를 공수(빈손)로 보냈다는 말씀

이 있다(1: 51-53). 칼 바르트가 독일 자판 빌이라는 광산촌에서 광부들, 반자들 대상으로 이런 성경구절로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때 자판가들은 그를 빨갱이 목사로 규정하였다. 지금도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 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를 좌파라 하기도 하며 빨갱이라 부르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좌파나 빨갱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이런 자들은 정치 이념에 찌든 자들로서 이념을 복음정신보다 앞세우는 자들이다. 결코 교회 지도자라 말할 수 없다.

지도자는 국민이나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겠다 하면, 그 인물의 성격, 성품, 과거행적, 정신상태, 사상, 판단이나 집행의 능력, 도덕적 자세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 살펴 보아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만한 인물이 얼마나 되며 몇몇이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한 지도자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국민들이나 성도들에게 있어야

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 나라 지도자의 수준이 아닐까 싶다. 국민에 의한(for) 정치, 국민을 위한(for) 정치, 국민의(of) 정치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성찰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어떤 사물, 사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지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삶의 결과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며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려면 태도와 행동, 방법이나 기술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때 행태나 방법만 바꾸려고 노력할 때에는 결국은 패러다임이 변화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조직이나 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다음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

시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기에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전에 근본적인 것은 그런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패러다임을 재검토하는 일입니다.

일찍이 플라톤이 말하기를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키워내는 뿌리에 대한 진지한 살피기 없이 그냥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자식을 기르며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다가는 쓰러진 실패에 직면합니다. 인생 살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긴급한 것은 삶의 뿌리에 해당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최선 박사

세계로부천교회 위임목사, 삼백만 부흥운동본부 총재

대한민국의 정국은 하루가 다르게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기간동안 정쟁화 하였고 정례적으로 다루어졌던 행정부, 사법부, 국방, 민생 등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다. 입법부에 관한 예산만 제외한 채 최소한의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것은 진영논리에 빠져 편파적인 입법권 남용으로 빚어낸 결과였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국민은 혼돈에 빠졌다. 비상계엄 시작부터 해제까지의 6시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와 국가기관 그리고 곳곳에서 탄식과 대란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국민들의 원성이 반져 촛불 비상사국 선언과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은 헌법 수호와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정권부터 수사가 시작되었

고 여전히 초유의 사태인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 소관한 지경이었다. 그러한 중에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이제부터라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야권에서도 일방적인 주도권으로 행정부 마비와 같은 예산 삭감과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특정한 진영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다. 좌와 우 모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12월 7일 토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었다. 하지만 여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은 특검법과 탄핵안 불발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회적인 승리이다. 야권은 상시 특검법으로 몰아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통과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정할 것이고 대통령 탄핵 역시 그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정국 해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확한 시선에서 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 시국 상황은 근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

진들과 소장파 인사들에게도 지혜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도 깊이 있는 반성과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야당은 자급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무조건 탄핵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 보는 역사시대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야권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될 수 있으니 정상적인 국정을 이끄는 동반자의 자세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에 동요되지 말자. 정확한 팩트 체크에 입각한 뉴스가 아닌 것은 걸러 내어 가짜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자. 그리고 정국해법에 분명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자. 아울러 한국교회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자. 분열과 불신의 자세를 버리고 믿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빠르게 살지 못한 차이에 대하여 회개와 각성의 자세를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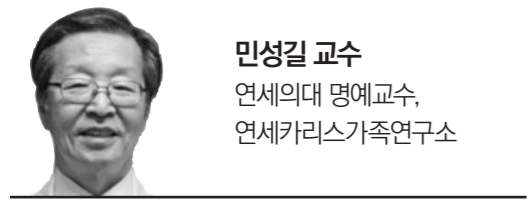
칠삭 같은 밤의 시간도 태양이 뜨면 낮이 오듯 현재의 국가적인 위기에 도전하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력이 있다. 먼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안정과 발전의 기회로 삼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정적으로 정치권을 격정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소망한다.

동국의 철학

철두철미
동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에 대한 믿음. 푸르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
동국이 그 믿음을 빈틈없이 지켜 나갑니다.

70th STEEL WITH YOU
동국제강그룹

성혁명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이유



민성길 교수
연세대의명예교수,
연세카리스가족연구소

크리스천이 본 젠더

성혁명적 성교육의 발상은 1930년대 빌헬름 라이히에서 제시되었다. 그는 소련의 혁명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서구에 섹스를 통한 공산주의 혁명을 구상하였다. 그 내용은 오르가즘 숭배에 기초하여, 프리섹스, 청소년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 동성애 옹호, 등을 주장하였고, 그 수단으로 "성을 억압하는" 전통적 일부일처제 가족체제와 기독교의 파괴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자유분방하고 기성세대에 대해 곧잘 반항하는 청소년들을 성혁명가로 키우자고 제안하였다. 빌헬름 라이히가 제안한 성혁명의 전략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구에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것이다.

빌헬름 라이히의 막시즘은 프로이트막시즘이라 한다. 그는 사후에 마르쿠제와 더불어 68학생혁명을 위한 사상적 멘토가 되었다. 그 68학생혁명 때 성혁명의 구호를 외쳤던 운동가들이 성장하여 아마도 UN과 EU에 포진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들은 막시스트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1980년대 미국에 에이즈가 퍼지면서 프리섹스

풍조와 동성애가 주춤했다. 동성애자들이 재빠르게 성병(에이즈)을 예방한다면서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데 앞장 섰다. 그들의 아젠다는 인권과 "안전한 섹스"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리섹스와 콘돔 사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금욕이나 절제 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어느새 성교육에 동성애도 하나의 정상적인 섹스로 포함 되었다.

이제 성혁명적 성교육은 WHO나 UNESCO 등 국제기구에 의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었다. 말이 좋아 "포괄"이지, 실제로는 성에 대해 이것 저것 다 가르친다는 것이다. 프리섹스, 자위, 피임법, 성병예방법은 물론, LGBTQ+도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이는 위험하다.

왜 위험한가? 첫째, 소아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할 뿐 아니라, 뇌 발달에서도 그러하다. 즉 청소년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어서 자극에 취약(vulnerable)하다. 그래서 청소년은 마음에 상처받기 쉽고,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자제력이 부족하여 욕구를 곧장 행동에 옮긴다. 성교육에서 배운대로 해보려 한다. 그 결과 그 이후의 인생은 복잡하게 된다.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의미에서 최근 의학계가 제시하는 사춘기의 새로운 기준은 18세까지가 아니라, 뇌가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보는 20대 중반까지이다.

둘째 프리섹스와 LGBTQ+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지, 불임을 증가시키는지, 성병을 전파하는지, 낙태를 조장하는지, 등등 잘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 특히 남자동성애자들(MSM) 사이에 에이즈, 간염, 임포스에 이어 TMV라는 피부사상균에 의한 새로운 성병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LGBTQ+가 어떻게 우울증과 불안, 약물남용, 자살, 섭식장애, 자폐증 등,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는지 잘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성혁명이 진행된 진보적인 선진국 사회에, 오히려 고독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과 마약중독과 자살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의 행복에 관련하여, 일부일처제 가족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하나님 창조섭리이기도 하다. 프리섹스나 LGBTQ+는 비자연적이다. 자연을 위배하면 병이 생긴다. 하나님 창조섭리 거역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이다. 이들은 프리섹스나 LGBTQ+는 가정을 파괴하고 성병을 전파시키며, 궁극적으로 불임을 초래한다. 불임을 초래하는 행동이 자연일 수 없다. 그럼 왜 프리섹스나 LGBTQ+인가?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최근 인격발달이론적으로 "적대적 소아기 경험"이 관련 있다고 한다. 어린이에게 적대적 경험이란 가정의 파괴, 어린 시절 학대, 성폭력 등등이다. 이 "어린 시절 적대적 경험"은 LGBTQ+와 성중독은 물론, 우울증, 불안, 자살, 마약남용, PTSD, 섭식장애,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및 기타 성장애들과 유익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정신건강문제들은 LGBTQ+는 공존하기 쉽다. 이들은 모두 인간적인 욕망, 즉 성욕과 폭력성과 그에 따른 좌절과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아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은 필요 없다. 대신 순결교육을 해야 한다. 사랑과

결혼과 가족과 출산의 아름다움을 가르친다. 권리보다 의무와 절제를 가르친다. 소아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프리섹스, 콘돔사용, 낙태약, LGBTQ+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전통적 성교육도 순결교육이었다. 남녀칠세부동석, 삼강오륜 등등.

굳이 성교육을 해야 한다면, 생명현상과 임신의 생리에 대해 연령대에 따라 매우 기초적인 것만 가르친다. 그리고 건강 면에서 낙태와 성병의 위험을 경고한다. 만일 아이들이 어디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LGBTQ+에 대해 듣고 질문이 있을 경우, 교사 또는 부모는 어른/대학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공부해 보라고 조언한다.

교사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LGBTQ+ 정체성을 나타낼 때 부모에게 알리고 협력하여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많은 의학계 연구들이 LGBTQ+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이성애자와 시스젠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성급한 "확인"이나 성전환 시술을 하는 것은 "do not harm"이라는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 교육지도자들과 사회 엘리트들은 굳이 포괄적 성교육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우리사회에서도 전반적인 풍조가 성혁명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캐주얼 섹스를 즐긴다거나 LGBTQ+에 동조하는 것이 무슨 멋진 일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프리섹스 풍조를 대변하는 듯한 한 스캔들이 최근 터졌다. 즉 한 유명 연예인이 결혼은 하지 않은채, "동거하는 사람 따로

연애는 연애인과 따로, 출산은 또 다른 여자와 따로"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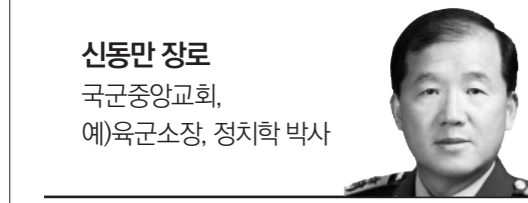
포괄적 성교육은 성혁명 전략의 일환이다. 성혁명가들은, 전통 성윤리를 혁명하여 혼란이 야기된 중에,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쥐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포괄적 성교육이 "교육의 섹슈얼리제이션"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학생 교과서에 포르노성 그림들이 등장하는 것은 일종의 관음증인 것 같다.

현재 포괄적 성교육과 그 배후의 성혁명을 막는 방파제는 우리 크리스천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크리스천 학부모들의 활동은 눈부시며 그 희생적 봉사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성혁명적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맹렬히 반대하여 왔었다. 지금도 소아에 대한 성전환 시술과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항의가 거세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LGBTQ를 반대하는 트럼프 전대통령을 옹호하였다.

프리섹스, 불륜, 가정의 파괴, LGBTQ, 낙태, 안락사 등은 모두 생명을 차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이다. 악이며 그래서 죄이다. LGBTQ의 원인되는 "적대적 소아기 경험", 즉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것 역시 바로 악이며 죄이다. 이 모든 점에서 성혁명적 성교육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전쟁은, 악에 대한 선의 투쟁이며 영적 전쟁이다. 지금은 힘들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위대한 기업을 넘어 영원한 기업으로(14)



신동만 장로
국군중앙교회,
예)육군소장, 정치학 박사

사도바울 당시 로마제국은 세계최강국이다. 팍스 로마나이다. 그러나 당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집권층과 부유층의 자제는 라틴문화를 배우는 대신 그리스도의 헬레니즘 문화를 배우기 위해 로마에서 아테네로 유학을 보냈다. 당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등 수 많은 철학자들과 자연 과학자들을 배출한 도시로 로마 뿐 만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젊은 영재들이 유학하던 곳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나 스탠포드대학교와 같은 전 세계의 영재들이 모여 공부하고 연구하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빌립보를 거쳐 아테네에 도착하여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기다리며 시민들의 한심한 작태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종교적 허구성을 보고 예수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하였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에페쿠로스, 그리스 대표사상)와 스토아(스토아학파)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노 하고 혹은 이르되 이 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롬 17:16-18)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길과 진리와 생명 이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예수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학문이 배설물임을 알았으며 또한 아넌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말장난 같은 초보수준의 낮은 인본주의 철학임을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고 말씀한 것이다. 바울은 예수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복음만이 능력임을 온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고라 자랑하던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의 위대성을 확신함으로 전했던 것이다.

사도바울은 인간의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학문도 예수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는 비교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 아테네에 머무르면서 온 몸으로 확인하고 깨달은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강조한 내용이다. 바울서신의 매

첫 머리 인사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하노라'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평강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은혜와 평강 외에 하나님의 공물을 더하여 강조하였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서 강조한 말씀이 공물인 마음이다. 필자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공물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준 것이라 생각한다. 바울은 생명을 바쳐 피붙이와 같이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다.

로마에서 오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공물인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 필자 역시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와 이웃을 공물인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 말

씀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본 적이 많다. 한 마디로 독자 여러분들께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까지 '팔자를 고치고 대박이 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가정의 삶의 기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를 알려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삼위일체 하나님께 누구든지 알도록 안 내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민의 근원이시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구세주'시며 '심판주'시기 때문이다. <계속>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법철학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지금 한국사회는 법(法) 논리로 난리다. 법을 너무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 사람은 법을 너무 좋아해서 사과 한마디로 해결할 일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다 살림이 거덜난 사람도 보았다. 법률 조정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들었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정당과 정당, 기관 대 기관이 모두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상대를 허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폭망하는 수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법(法)이란 단어는 원래 게르만어로 레흐트(Recht), 그리스어로는 디크(Dik), 라틴어로는 유르(Jur), 히브리어는 미쉬파트(mishiphath)라고 한다. 레흐트는 '직선'이요, 굽은 것을 곧게 한다. 다스린다. 또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정부이고, 법으로 심판하는 곳은 사법부다. 그런데 결박하면 입법부 사람이 정부를 향해 '탄핵한다'고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고, 법을 심판하는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한 마디로 뒤죽박죽의 나라이다. 결국 잘못을 하면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만, 법관들을 향해 허죽허죽 조롱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법조계에서도 맘모니즘(Mammonism)이 뿌리 깊게 내렸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는 말 할 입장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해야 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맞지만, 역시 돈 거래가 있거나 정치적 압력이 있으면, 재판기록을 책상 서랍에 넣어 놓고 무한정 세월을 보내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거나 돈 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는 법관들도 있다고 들었다.

지금 한국은 단군 이후에 최고 최대의 호황기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 하려고 매일 같이 사람들을 보내고, 한국의 발전상을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어거지, 폐거지, 법도 무시, 국민도 무시, 자기 땅의 이익만을 위해서 고함치고 거짓말과 불법을 저질러도 사법부의 타락이 착한 시민들을 울리고 분노케 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소송 사건에 휘말려 있고, 불쌍스런 옥지경이 많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화해(Reconciliation)이지만, 그동안 화해해서 문제 해결을 아름답게 해결했다는 것은 별로 본 일이 없다.

나는 법을 알지도 못하지만,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본 일도 없고, 고발당한 일도 없었다. 모든 서민들은 거의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요즘 떠다니는 말들을 보면,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지 죽을 죄인도, 감옥에 가서 썩을 죄인도 돈 만 잘 막으면 무죄가 된다는 소문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법을 잘 몰랐지만 52년 전에 세계 최고의 법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Dr. Herman Dooyeweerd)를 찾아가서 그에게 법철학을 들은 일이 있다. 도예베르트 박사는 본래 형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아브라함 카이



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접한 후에, "우주에 법이 있는 데, 그 법을 관장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법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도예베르트 박사는 내게 "자신의 법의 표준은 시편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법철학의 표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학이나, 정치학이나, 법학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대답이었다. 모든 학문에는 원리가 있고, 인생의 모든 삶에는 어떤 세계관이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도 바뀌고, 나라의 장래도 바뀐다고 볼 수 있다.

법관이 되려면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관련 법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만 법의 조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법관이 가진 세계관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법조문을 꿰어맞춘다 해도, 상식에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더더구나 비뚤어진 세계관을 갖는 재판관의 판결은 온전하다 할 수 없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이 미사일 전쟁, AI 전쟁, 핵 전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세계관 전쟁이다. 비뚤어지고 좌편향된 교육 이념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르침에 부게 물들어가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미 거짓된 세계관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자녀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이 무서운 거짓된 세계관이 정치권도, 법조계도, 교육계도 망가뜨려 왔다.

세계 최고의 법철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나의 법철학은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를 법의 잣대로 삼았다."

社說

‘등록동거혼’이 저출산 대안? 제정신인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무리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데도 성 윤리가 무너진 유럽 국가에서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무분별하게 들여오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 국무위원과 부처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그 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위가 내놓은 획기적 방안이 '등록 동거혼'이라는 것이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에서 시작된 제도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유럽 젊은이들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서구의 '등록 동거혼'제도를 저출산위가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건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데 착안한 듯하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논리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결혼이란 제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담과 자녀 양육이 짐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가볍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등 관계에 구속받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복잡한 결혼 대신 동거를 권장하면 아기를 많이 낳을 거라는 기대는 헛된 바람일 뿐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달부터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거라고 한다. 아마도 최근 불거진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혼외자 논란을 계기로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외국에서까지 인구 절벽, 위기론이 거론된 나라의 중대사를 유명배우가 일으킨 혼외자 파문의 틈을 타 밀어붙이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저출산위의 이런 시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저출산위가 모델로 삼은 제도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이라는 점이다. 1999년에 프랑스에서 시행된 PACS의 골자는 미혼 성인 두 명이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결혼 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PACS는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이 복잡한 법적 이혼 절차를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사회 문제화되자 그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거 관계가 아닌 혼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구조다.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아기를 낳기를 꺼리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동거인에게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가족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제도가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길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위는 '등록 동거혼'에 동성 간의 동거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동거 자체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이를 변칙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성애자들이 왜 우리나라 안 되냐고 항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위한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저출산 비상사태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할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한 건강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다. 괜히 알팍한 수를 썼다가 가족제도가 붕괴하는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등록동거혼'을 규탄하면서 나 의원의 주장은 최근 불거진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스캔들에 영합한 것으로 동성간 결합을 위한 문호만 열어주는 결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포르노, 성매매, 사춘결혼, 마약, 동성결혼 등이 일찍부터 합법화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한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유럽 국가 등에서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출산율을 핑계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혼인 전제되지 않은 남녀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공상에 불과하다. 혼인 외 출생과 자녀 양육이 활성화되면 법적 정상가족 규범은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게 프랑스의 PACS인데 이를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저출산위가 추진하는 이 기형적 제도는 처음엔 이성간 '등록 동거'로 출발하겠지만 뒤이어 동성간 '등록 동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장차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가 치명상이 될 이런 구상은 국민 사이에 상처가 되기 전에 깨끗이 지우는 게 맞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10-5169-8291
광고문의 010-5169-8291
대표구좌 동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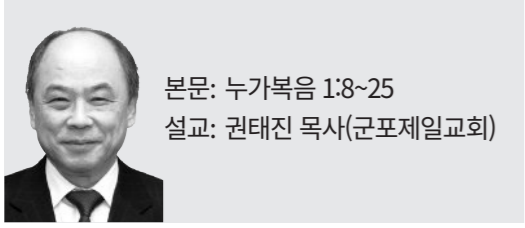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세례 요한의 잉태가 주는 교훈



본문: 누가복음 1:8-25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감사와 사랑, 행복이 넘친 한 해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는 날에 대한 아쉬움보다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때입니다. 청년은 장년을 기대하고, 노년은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1:14-16)

여기서 '너'는 제사장인 사가랴를 지칭합니다. 사가랴는 유대 왕 헤롯의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그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산 의인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있을 때, 사가랴는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산:29)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 무지한 자의 기도, 병든 자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1.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생물학적으로 아이

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1:13)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눅1:14)

부모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아담에게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고, 나실인 삼손에게는 머리를 밀지 말라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금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5:18)

오늘날 우리에게도 금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눅1:16)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눅1:17)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언되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말4:5)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라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마11:14)

하나님은 시대마다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 다윗, 삼손, 사도들, 신약의 일곱 집사를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



원을 받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눅 1:18)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눅1:19)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보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과 장래의 흥편을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세상이 악하다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

신이 잉태한다고 했을 때 의심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창 18:10-13)

자신들의 흥편을 보고 부정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원이 있을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4)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가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

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게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 지리라 하더라”(눅1:20)

하나님의 계획은 사가랴의 믿음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가랴는 자녀가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기능을 잠시 중단시킨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발언권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도, 권력도,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눅:22)

사가랴는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눅:24)

엘리사벳은 노년의 잉태를 부끄러워해서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태한 후 주의 뜻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눅:25)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노년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도다”(시127:3-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발달장애인·전문연주자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창단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초문화예술회관 공연

발달 장애인과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서울시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결성된다.

서울시어린이병원(원장 남민)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병원 내 레인보우예술센터가 창단한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창단 기념 공연 '꿈의 교향곡'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발달 장애 어린이 30명과 전문 연주자 3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예술단이다.

5대1 경쟁률을 뚫고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된 발달 장애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가 일대일로 짝을 이뤄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케스트라에 선발된 발달 장애인에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단원, 전문 오케스트라 경력을 가진 단원,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단원 등 유망주들이 포함돼 있다.

전문 연주자들은 사단법인 이노비 소속 전문 연주자와 레인보우예술센터 음악 치료사들로 구성됐다.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이번 연주회를 시

작으로 향후 마스터 클래스, 국내외 순회공연 등 협연을 하고 전문적인 오케스트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연에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20)씨는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치유의 오케스트라로 내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 준다”고 말했다.

서번트 신드롬 이상우(24)씨는 “우리 연주를 듣고 박수를 많이 쳐 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 실력이 더 좋아지고 싶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화합

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2부에서는 레인보우예술센터 발달 장애 뮤지션들이 '꿈'을 주제로 뮤지컬 무대를 선보인다. 실력과 보이밴드 원 위(ONEWE)가 공연한다. 원위의 보컬 동명과 융혼이 사회자로 나선다.

지난해 7월 개소한 레인보우예술센터는 기업과 협력해 발달 장애 예술인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브릿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휴플러스는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단원인 발달 장애 청년들이 직업 예술인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센터 내 미술적 재능으로 꿈

을 키우고 있는 작가들에 취업 연계를 통한 자립을 돕고 있다.

(주)조흥, LOT 베캠, LOT CES, LOT TS, (주)오투기 라면,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도 발달 장애인의 자아 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민 서울시어린이병원장은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사회 통합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장애의 경계를 넘어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응원하고 꿈이 빛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루리 기자

**믿음과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개발 및 시공 품질관리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성누리건설 주식회사
SUNGNURI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전 용 건

경기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4-21 T. 031-392-0812-3

영남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복순원로 354-12 201호 T. 054-857-9274

호남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민성로230-11 T. 061-653-3292

Email: snr0812@naver.com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종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으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희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래시태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허리 관절통증 大 무료체험행사

1개월 이상만 복용하셔도 재구매율 85% 이상 ▲ 무료체험 후 효과 있을시만 주문가능합니다.

무료체험기회



- ※ 계단보행이 불편하신 분
- ※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신 분
- ※ 무릎, 허리, 발목, 목등이 불편하신 분
- ※ 이번 기회에 관절건강을 찾고 싶은 분

※ 꼭 체험 후에 구입하십시오 ~
 체험 후 효과를 보신 분만이 구매하실 수 있고 중복체험은 불가합니다.



식품제조허가 : 제 2020-0029046호 특허등록 : 제 30-1204880-00-00호

(주)관절건강에서는 한방연구에만 40여년을 종사한 한방 제품을, 각종 관절의 통증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꼭 무료체험용을 보내드립니다.

10일분 무료체험 (주)관절건강 꼭~보내드립니다! 가격도
무료체험 택배비 4,500원만 착불!
 주문은 꼭 문자로만! **010-6335-0165** 저렴합니다!
 02) 2268-0719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 (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경력 및 출연작
 전 국동방송 드라마 성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 (주연)
 씨르프르작, 이강렬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 (주연)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 출연 등



사무처장 경기만 목사

학력 및 경력
 한동대학교 영문과 졸업
 대구가톨릭 교육대학원 장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수 유제상 목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한영실신신학대학원 졸업
 전 KBS 드라마 성우
 연극출연작 육혈표 강도



교수 강두남 박사

학력 및 경력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구약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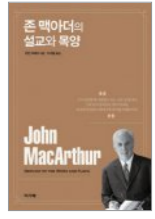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3월 첫주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수업 졸업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개혁신학교 신학 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 복음 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사랑의 교회 내

존 맥아더의 믿음을 본받으라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존 맥아더의 설교와 목양'



존 맥아더 목사는 가장 좋아하는 전기 작가로 이안 머레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머레이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전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J. C. 라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써냈다(부흥과 개혁사, 이레서원, 복있는 사람 등에서 출간함). 맥아더 목사는 이안 머레이가 쓴 전기를 사랑하는 이유로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보다 그 사람이 선포했던 신학을 성경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안 머레이가 쓴 존 맥아더의 전기(2024년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존 맥아더의 설교와 목양>)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이 번역되어 국내 보급된 경우도 매우 흥미롭다. 예수비전 교회의 담임목사인 도지원 목사는 지난 12년간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를 통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J. C. 라일 등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를 소개해 왔는데, 2024년에 선정된 인물이 바로 존 맥아더 목사였고 그 시점에 맞춰 이안 머레이가 쓴 이 책을 번역 및 보급하였다. 원서는 본래 2011년 5월 베너 오브 트루스에서 출간됐고, 그 초안은 2009년 존 맥아더 목사의 목회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설교자로 초청받은 머레이가 작은 헌사의 의미로 쓴 전기적 스케치였다(6p). 필자는 존 맥아더 목사가 총장으로 있는 마스터스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이 역사적인 날 머레이의 설교와 그 설교가 초안이 된 원서를 모두 접할 수 있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55년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도를 목양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의 책이 이안 머레이를 통하여 한국에 보급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저자 머레이는 이 책에서 몇 번이나 "아직도 개요를 조금 벗어난 정도의 전기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평가한다. 사실 그가 쓴 라일이나 에드워즈, 특별히 로이드 존스의 전기와 비교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기 위해 계속 자라나고 있는 인물을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처럼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존 맥아더의 도움 없이 주변에 있는 필 존슨과 여러 회중의 간증 등을 통하여 만든 것이기에 언젠가 머레이가 그전에 쓴 전기처럼 더욱 완벽한 전기를 써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존 맥아더 목사에 관한 첫 전기적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세계적인 설교와 목양의 결과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존 맥아더 목사의 개인적인 삶과 헌신과 노력 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충성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중간중간에 삽입된 사진이나 마지막에 수록된 가족 및 교회 사진도 존 맥아더 목사의 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다.

필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참석하면서 존 맥아더 목사의 설교와 목양을 직접 경험했다. 존 맥아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회가 다루야 했던 법정 문제로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보다 더 다양하고 자세한 존 맥아더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꿈꾸게 된 계기, 그레이스 교회 부임 초창기와 중반기의 역사를 담고 있다. 아버지 잭 맥아더는 훌륭한 분이 되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했다. 운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존 맥아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항복하고 말씀 사역에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다. 신학교에서 파인버그 박사가 '자네는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놓쳤

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지금도 존 맥아더 목사는 그 사건을 종종 언급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경종이 된다고 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30시간 이상 연구하고, 단지 한 절, 한 절 설교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교리와 원칙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헌신한 지난 세월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그레이스 투 유 사역을 통해 후원금 모집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일해왔고, 라디오 사역과 문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사용하신 역사가 이 책은 말하고 있다. 한 성도는 존 맥아더 목사의 가장 강력한 설교를 '그의 삶'이라고 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존 맥아더 목사의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선포할 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소리치지만, 성도를 목양할 땐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가 된다.

물론, 한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무척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2024년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에서 도지원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뒤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분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삶을 바친 존 맥아더 목사의 설교와 목양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충성하고 그분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 역시 존 맥아더 목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히 13:7)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신간

하나님의 시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영성을 깊이 탐구한다. 챔버스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목상을 엮

어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도전적이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만, 챔버스가 살아낸 여정은 열심 너머를 향한다. 그의 목상은 인간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이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



님의 존전 앞에 스스로 앞도려 순복하기를 택할 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며 권면한다.

저자는 "우리는 종종 '사역'이란 특별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오면 특별하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신간 '말의 힘' 출간

긍정적 언어로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비결 답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경영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담은 신간 '말의 힘'을 출간했다. 웅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저서는 윤 회장이 지난 44년간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성공 비결을 중심으로 한 자기계발서로, 전작 '나를 돌보는 법'에 이어 2년 만에 선보이는 네 번째 저서다.

책은 언어와 사고방식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긍

정적인 언어가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윤 회장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윤 회장은 브리태니커 한국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백과사전을 판매한 경험부터 세계 최초로 생활가전 렌탈 서비스를 도입하며 웅진코웨이를 성공시킨 사례까지 자신의 경영 여정을 책에 담았다. 또한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긍정의 힘으로 조직과

자신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통해 경영자와 일반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한다.

책은 일상 속 말과 태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불만이 가득했던 청년 시절에서 벗어나 긍정적 사고와 언어로 인생을 전환한 경험을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공감을 전한다.

또한 윤 회장은 "행운은 불행 뒤에 숨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도전 정신을 잃지 말 것을 독려한다. 그는 "삶이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며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다. 이나래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하나님은 부부가 갈등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시지만, 허락하신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두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원하는 방식대로는 절대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운 부부의 갈등 해결 방식에 따라 부부가 갈등을 다룬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볼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컨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국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 위한 투쟁이고, 명백한 진리는 절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결혼, 하나가 되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신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었다고 바울은 말한다.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었지 '죄'의 실체는 없으셨다. 이득영 '나를 향해 열린 하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말은 사람이 저급한 상태에서 고통한 상태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우쳐주며,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관리(통치)를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가정, 자녀, 일터, 민족, 복한, 열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뜻과 사명)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과의 언약(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세영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쌍원대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처럼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12)

만일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 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 제목으로 사용하기에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기도 제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런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잘못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사용하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 시고"라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 쳐 주실 때 염두에 두고 계셨던 '죄'는 다 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응당 받아야 하는 형벌과 우리가 하나님의 공 의에 지고 있는 일반 달란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 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 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 벌을 면케 해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지고 있는 빛을 모두 탐감해 주 는 것은 칭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앞에서 전제된 것에 의하면 "우리 죄 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 구하거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과 죄사함 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

코 의무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입 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심 이후에 있게 되는 믿음의 다른 행위들은 칭의와 아무 린 관련도 없다는 생각과 그렇기 때문에 회심 이후에 있게 되는 믿음의 다른 행위 들을 통해서 칭의를 추구하는 옳지 못하 다는 생각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 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을 영원히 단절시켜 버리 고 만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본분은 하나 님과의 화평과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 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결국 하 나님과 화평과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뢰를 통하여 하 나님과 화평과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것을 인식함으로써 신자들은 의롭다 하 는 믿음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신 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로부터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 면 '자신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에 관하 여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 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가 정말로 믿음의 행위였는지도 확신치 못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기쁨과 평안을 얻었는지 도 확신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해결책은 그와 같은 축복을 얻기 위해 바로 지금 그리스 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정당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으 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회심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미 회심한 사람이라면, 이 사 람은 그와 같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바 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 는 정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 심 이후에 있게 되는 믿음의 다른 행위들 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합당한 방안이 아니라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심 이후에 있게 되는 믿 음의 다른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합당한 방안이 아니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결코 합당 하게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연 약한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 회심 이후의 믿음의 행위들만 그런 것이 아니 라 믿음의 첫 행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 행위는 자궁 안에 있 는 태아의 최초 태동처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첫 행위는 굉장히 연약한 행위 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아무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라 할지라도 자신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 가 참으로 믿음의 행위였는지 그렇지 않 았는지를 확정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신들이 행한 믿음의 첫 행위가 정말로 참 된 믿음의 행위였는지를 확정짓지 못해 안절부절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 음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만족했던 사 람들까지도 크게 퇴보하고 타락할 경우 쉽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큰 두려움에 빠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은 회개를 통하여 죄를 버리 고 죄로 인하여 응당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그 자 리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 받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면, 그 방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심 이후에 있게 되는 믿 음의 행위도 우리의 칭의와 관련되어 있 다는 점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 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곧 회심 이후에 있게 되는 믿음의 다른 행위들은 하나님 과의 화평과 죄 사함을 얻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들 이 생기는 지를 말씀드림으로써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 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증거 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위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아브라 함이 행사했던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 라함이 보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갈라 디아서 3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아 브라함이 행사한 이 믿음의 행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전체와 갈라디아서 3 장 전체에서 이신칭의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확증하면서 정말 매우 강력하게 역설하는 중요한 실례요 증거입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죄인의 기도란 무엇인가?

'죄인의 기도(Sinner's Prayer)'는 자신 이 죄인이며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 다.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죄인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죄와 구원 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의 첫째 부분은 우리 모 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

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를 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 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 요한 죄인입니다(딤후 3:5-7).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 이나(마 25:46). '죄인의 기도'는 심판 대 신 은혜를 구하는 호소입니다. 진노 대 신 자비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의 둘째 부분은 하나님 이 우리의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를 해 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예

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사람이 되 셧니다(요 1:14).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고 완전 히 의롭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요 8:46; 고후 5:21). 그 후 예수께서는 우리 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 니다(롬 5:8). 예수께서는 죄, 죽음 그리 고 지옥에 대한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골 2:15; 고전 15장). 이 모든 것 덕분에 우 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

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집을 약속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 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 셧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롬 10:9-10).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 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의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마법의 주문'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 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인이 며,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 님께 다음과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드리 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에 대 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 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합니다. 저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죄를 사해주셨다고 믿 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오직 예수 님만이 저의 인격적인 주님이시요, 구원 자가 되심을 신뢰합니다. 저를 구원하시 고 용서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멘!"

이곳의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로 영접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 랍니다.
갓케스투스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F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강지윤 칼럼 우리는 왜 원치 않는 상처를 받는가?



이 세상에 상처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처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이어갑니다.

상처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가정입니다. 불행하게도 상처의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새기며 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구성원들이 각자 사회로 나아갈 때 거기서 또다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족체계에서 생긴 상처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도 가슴 아픈 인생스토리를 가진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 아픔이 들어 있었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깊은 삶의 문제들이 수없이 널려있어서 너무나 오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신경질적이고 난폭하게 저와 동생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자신의 화를 우리에게 푸는 것 같았죠. 얼굴만 마주치면 비난하고 심한 욕을 해댔어요. 사소한 일에도 저를 몰아붙여 세우고 맹수같이 달려와서 때렸어요... 반항도 못했죠. 뺨 때리고 머리 쥐어박고 발로 차고 코피도 수없이 터지고... 엄마가 집에 올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또 언제 욕설과 매가 날라올지 몰라서 저와 동생은 숨죽이며 있었어요... 저도 동생도 순한 성격에 다른 사람들한테 툭툭하다는 소리 듣고 자랐는데, 너무 맞고 하다보니 말을 할 때마다 때는 버릇이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서 동생과 제가 하루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생긴 버릇 때문인지 지금도 누가 조금만 뭐라하면 벌벌 떨리면서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피해망상도 심한 것



같고 얘기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성격과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성숙해지겠냐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처 때

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상을 차단할 만큼의 분노와 폭력을 행사했던 그 어머니를 상담실로 초청했습니다. 오지 않으려는 그 어머니를 간청해서 마침내 만났을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똑같이 난폭하고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그래도 자신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성숙한 엄마가 되지 못한 것이 자신의 딸에게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상처받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사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 버립니다. 깊은 죄성에 몰든 타락

한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든 미성숙한 가정 내에서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성숙한 가정과 가족체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나 때문에, 연약한 자녀가 울고 있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배우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은 이처럼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인식과 자각은 성숙한 가정과 가족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나는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성찰해야 할 우리 모두의 필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김성광 칼럼

행복 자격증을 가진 사람

승한이 누나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는 바람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며 동생 승한이를 키웠습니다. 승한이에게 누나는 곧 어머니였습니다. 고생 끝에 누나가 얻은 안정적인 직업은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승한이 누나는 승차 거부 한번 한 적 없었고, 노인이나 장애인 차에서 내린 곳이 어두우면 헤드라이트로 앞길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승한이를 의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읍주운전을 한 덩크트라이 중양선을 넘어와 누나의 택시와 충돌한 것입니다. 누나는 이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승한이의 결혼식을 열마 앞두고 일어난 사고라 누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승한이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혼녀가 그런 장애인 누나를 모시고 산다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승한이는 어머니 같은 누나를 버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약혼녀의 집 안에서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승한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이렇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승한이는 약혼녀를 포기했습니다.

실연의 아픔에서 벗어날 즈음 어느 늦은 오후, 승한이는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을 넘겨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 택시들은 도망쳤습니다. 그 때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뒤편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라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승한이가 누나를 택시에 태우는 동안 여기서는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한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승한이 택시에서 내려 누나의 휠체어를 밀고 고아원으로 올라가는 동안, 택시는 헤드라이트를 비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승한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국 승한은 그 여자 택시기사와 결혼해서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수필집에서 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이야기입니다.

故 김성광 목사

동성환 묵상

하나뿐인 나

내 옷장에는 별로 입지 않은 스웨터가 하나 걸려 있다. 너무 작다. 소매도 너무 짧고 어깨도 너무 좁다. 단추도 몇 개 떨어져 나갔고, 실밥도 많이 해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나는 그 스웨터를 치우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것이 논리의 말이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스웨터에 얽힌 독특한 사연이 나오 하여금 스웨터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

남다른 사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스웨터가 할머니의 애뜻한 모정이 표현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스웨터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실 가닥 하나하나 정성스레 고른 것이다. 실밥 하나하나 사랑으로 택한 것이다. 스웨터로서의 용도는 모두 잃었지만 가치는 전혀 잃지 않았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기능 때문이 아니라 지으신 분 때문이다.

시편 기자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주는...어머니



의 태에서 나를 베를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베를 짜듯이 지어진 존재이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대량 생산품도 아니다. 조립 라인에서 짜 맞추어진 제품도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匠人)이신 하나님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 받은 존재이다.

2인자가 설 곳이 없는 사회에서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봉급 액수나 다리의 각선미로 인간의 가치에 순위를 매기는 사회에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설계야말로 기쁨의 진정한 이유이다.

맥스 루케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중에서...)
출처: 햇볕같은이야기

오늘의 예화

법보다 위대한 원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일세.”

우리는 법보다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은총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리 - 율법적인 원리 - 가 아닌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왜 깨어져야 할까요?(1)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이 금이 가고 깨어져야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 역경에 부딪치게 하므로 고난에 처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손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 1:2-4)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왜 깨어져야 할까요?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될 첫째 이유는 인본주의가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 아닌 자기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

주의요 인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수가 어디 있어?"하며 비웃던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봐도 그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신 만만하던 그 자신이 한계점에 부딪히자 인간의 무능력을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당하여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을수록 깨어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인간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벌써 그 육의 사람이 부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척도에 따라서 적게 깨어지는 사람, 많이 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인 것입니다.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나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전혀 나는 깨뜨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하는 것입니다.

안 깨어진 사람은 그 누구나 사울입니다. "나는 크다. 나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 청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사울이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는 적은 사람이다. 나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온 바울이 될 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을 없애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보잘 것 없이 보이는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십시오. 온유하지 않은 사나운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리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저 힘센 준령에서 살고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길들여진 가축들은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과 함께 살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온유하지 못하고 과격하고 성

내며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지만, 깨어지고 온유하고 길들임을 받은 사람들은 온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 50:15-21)에 보면, 요셉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온유하게 되어 그 원한도 가루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겁을 내어서 별별 핏 때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야말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지면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내가 과연 깨어진 사람이나? 그것을 알려면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사납고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나 이것을 알아보면 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져서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창골산 봉독사

향유욕망

빵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노숙인 사역은 빵 문제 곧 의식주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과제가 옮겨가면 위기가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에 매인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이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의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는 노숙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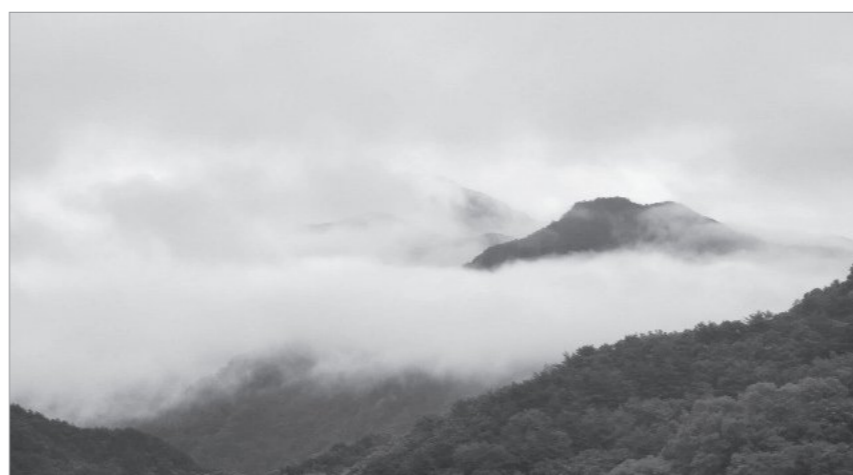
예수님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교인들 중에 몇이나 기뻐할 것이며 아니 몇 이나 교회에 남아 있을까?

그럼에도 복음 사역은 빵 만으로가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에

가답남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단체와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고 복지사와 목사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나



복지단체가 할 수 없는
치유와 가답남을 목표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 대화입니다.

이야기하늘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존 워버는 1962년까지 세상적인 음악을 연주하면서 소독과 명성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생애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을 고치는 것은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1964년 그의 세 살 된 아들이 양봉 상자를 잘못 건드려서 벌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부어오르자 다급해진 워버가 기도를 하였는데 몇 시간 후에 기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버는 혹시 아이가 면역성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1977년 1월에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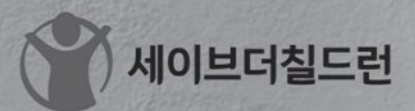
던 그의 아내가 기도로 치료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로 교회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을 확인한 워버는 그 이후 전적으로 치유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고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닷컴 | RED COMPASS 선교회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기록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아동은 최소 147명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이 아이들의 이야기 곁에 함께해 주세요.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 바로가기

영적 후퇴에 주님은 눈물 흘리신다... “퀴바디스 도미네”



한평우 목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길에는 유명 배우들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새겨 놓았다.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다. 유심히 보니 어떤 배우의 발자국은 무척 작아 앙증맞은 모습이었다. 그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과거 스크린에서 보았던 배우들이 찍어놓은 자국에 자신의 손과 발을 맞춰보기도 한다. 그 손자국이나 발자국은 그가 살았던 일생이 집약된 형상인 듯하다. 그것은 결코 고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한 인격의 완성품이다. 덧칠하거나 다시 그릴 수 없는, 개인이 걸어온 삶의 전 과정이 스며든 족적이다. 그 삶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주님의 소관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분신을 길가에 찍어놓으면서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

로마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서 아피아 안티카 길을 따라 성 문을 나가면, 왼편으로 ‘퀴바디스 도미네 교회(Church of Domine Quo vadis)’를 만나게 된다. 그 교회 정면으로는 많은 사람이 찾는, 규모가 가장 큰 칼리스토(Callisto) 카타콤의 입구가 기다리고 있다. 그 주변으로 수많은 카타콤이 무리지어 있다. 카타콤들이 이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있다는 것은, 그 당시 핍박받았던 많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Domine quo vadis?) [1], 안니발레 카라치, 1601~1602년경, 캔버스에 유채, 77 x 56cm,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그리스도인이 이곳으로 피신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울이나 베드로도

이곳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야말로 주님의 위로가 충만했던 장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세어지자, 그를 쫓는 사람들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사도께서는 이 핍박을 모면하고 살아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요구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양떼들은 모두 실망하여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충고였다. 그 충고를 받아들인 베드로는 이 길을 따라 핍박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유명한 질문을 드렸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크기를 줄자로 재어 보니 280mm였다. 나보다 15mm가 큰 것을 보니, 주님의 키는 나보다 크셨구나 싶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굴하여 소설로 완성한 사람이 폴란드의 앙리크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 1846~1916)다. 그는 이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고, 이 소설은 훗날 영화화돼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었다.

베드로가 로마에 왔었는지에 관한 논의는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Clement, 30~100)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클레멘트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된 클레멘트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27년 동안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하나,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칼뱅은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고자 아피아(Appia) 가도로 도망쳤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지금 내가 사진을 찍고 발을 맞춰 보는 이 형상도, 주님의 발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서에는 “이 형상은 복사본이고 진품은 세바스티안 카타콤에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형상이 진품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핍박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베드로는 아닌지 돌아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당회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올바른 말을 전하기가 두려워 애들러 말하기도 한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입을 닫기도 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점잖은 몸짓으로 비겁하게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말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도망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 앞에 멈추어 서신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신 주님께서 지나쳐 가시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셨듯이 말이다. 주님의 발자국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선명하게 찍히게 된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주님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마다 말씀하신다.

“나는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네가 도망친 그 핍박의 현장으로 간다!”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합창 지휘자의 자세



김영희

- 1) Maestro (It. 마에스트로) - 예술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사람, 교사, 음악가, 지휘자.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 음악적 리더, 그러나 음악에 앞서 교육자이고 지도자인 것을 명심.
- 2) 음악적으로 존경받도록 끊임없는 연구 (작곡가, 음정, 발음, 가사분석, 프레이징 등)
- 3) 지휘자의 결석이나 지각은 금물
- 4) 화를 내지 말자(항상 좋은 말로 권유) - 어려운 일이지만 지휘자의 큰 사명이다.
- 5) 항상 최고(Best)의 선곡을 할 것 (지휘자 실력의 절반은 레퍼토리)
- 6) 지휘자는 planner. (연주 프로그램, 연습계획 등)
- 7) 지휘자는 단원들과 고루 친해야 한다. 단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 단원들을 편애하지 말 것, 항상 거리 유지하기.
- 8) 단원들로 하여금 합창단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독려하라, 합창단 비전 제시, 합창단은 단원들이 끌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
- 9) 지휘자는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 - 지휘자는 servant이지, prince가 아니다.

- 10)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라. (지휘자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다) 합창 음악회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회를 자주 다녀라. 합창 음악회, 합창대회를 자주 다니며 새로운 레퍼토리를 접하고 연구하고 다른 지휘자도 관찰.
- 11) 지휘자는 항상 반주자를 챙겨주어야 한다.
- 12) 모든 단원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 13)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단원들을 가르치라 - 음악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적절한 언어 사용.
- 14) 음악적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라 - 충고를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한다.
- 15) 연주가 잘 되면 단원 책임, 못 되면 지휘자 책임.
- 16)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 살아있는 음악을 만들 것.

- 17) 지휘자는 긍정적, 적극적이어야 한다. - 각종 연주 등 일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기쁨을 느낄 때 자신과 합창단이 발전하게 된다.

◆ 김영희 서울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전공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코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으로 합창지휘전공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 서울장신대에 출강하였으며,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 트레이너를 역임하였다. 현재, 분당크로스 남성합창단 지휘자, 새문안교회 한기립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 교육대학원 출강 예정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

고린도전서 11-9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에서 영적인 은사를 매우 강조한다. 그의 서신 중 문헌인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몇 년 전부터 예배 때, 나는 성경 속 신앙의 여성들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나는 수용시설에 있는 십대 청소년들을 위해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가 처음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맡고 등장했을 때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으면서 등을 돌렸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지 불과 이삼 분 만에, 아이들은 점점 더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끝내자 몇몇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세요?” “아직도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변화시키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했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들 중 몇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했다. 당신이 잘하고 즐겨위하는 은사를 사용하

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노래하고 연기하는 이 능력은 모두 성령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이다. 내가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이러한 활동으로 열심히 헌신하여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것임을 믿는다.

매주 주일예배의 한 일부분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악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성령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악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항상 지혜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Genevieve and Hermon DeHoog 크리스찬 교육과 교회음악 등 교회의 여러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Genevieve 는 지역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Georgia 주의 Sugar Valley 에서 종교수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Dream, Universe & Love

2024. 10. 25.(금) ————— 2025. 2. 28.(금)

‘더 초즌’ 배우 조너선 루미, ‘기도는 영적 삶의 기초’ 강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드라마 ‘더 초즌(The Chosen)’의 배우 조너선 루미가 기도가 그의 영적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그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친다고 설명했다. 루미는 “제 하루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저는 제 도전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그분의 인도를 듣고, 성령께서 저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느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루미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대림절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영적 깊이와 중대성을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이라며 소비주의가 종교적 의미를 압도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유대인 빈민 가정으로 태어나셨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조너선 루미. ©CP

루미는 C.S. 루이스의 멘토링을 다룬 ‘A Severe Mercy’에 대한 목상을 녹음하며 눈물을 여러 차례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다.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루미는 “기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언”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루미는 간단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워싱턴이 기도 중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일화를 소개했다. 루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을 숨기지 않으신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음악이 기도와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루미는 오는 2025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인 더 초즌 시즌 5 “최후의 만찬”의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즌은 지금까지의 시즌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즌에서는 예수님의 감정과 행동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질문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며 그분과 연결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을 찾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만나러 오실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 권면했다. 최승연 기자

청현재이 성탄절 말씀그라피 「예수그리스도」展 서울·부산 동시 개최

“가나안” 성도와 지친 영혼들에게 따스함 닿기를”

청현재이 말씀그라피 문화선교회(대표 임동규)는 12월 대림절을 맞이하여 제5회 청현재이 성탄절 말씀그라피 「예수그리스도」 전시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요즘은 기독교 행사라는 이유로 거리의 트리 설치도 줄어 들고, 세상에서 만들어 낸 할로윈 축제 등에 가려져 예전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온 국민이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행사로만 치러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고 고백했다.



2024년 12월 대림절 기간에 진행되는 「예수그리스도」는 성도뿐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잠시 내려놓았던 ‘가나안’ 성도들이 주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서울지역의 청현재이 아트센터(경기 안양시 소재)와 부산지역의 부산극동방송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청현재이 말씀그라피 문화선교회 소속 말씀선교사들은 “이번 성탄절 말씀그라피 전시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전시회 준비에 임했다.

서울은 청현재이 아트센터에서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부산은 부산극동방송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선교회는 “성탄절은 10년 전만해도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며 축하하는 행사였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절 축하음악을 들어도 설렘이, 거리 곳곳에 건물 곳곳에 세워진 성탄 축하트리를 통해 예수님 탄생을 국민 모두가 축하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성영 기자

이런 전시에 참여한 청현재이 말씀그라피 문화선교회 소속 말씀선교사들은 “이번 성탄절 말씀그라피 전시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전시회 준비에 임했다.

선교회는 “성탄절 말씀그라피 전시회를 말씀으로 세상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백성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세이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실고 The울림 (108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 (박경수)	00 성지가 좋다 (460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 맛소와 아드라뫼네노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령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교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생명의 양식 정음 (유성택) 30 말씀의 능력 (전태사) (508회)	00 생방송 명실고 새벽기도회 40 2024 한소망교회 감사특방 (5회)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중 목사(영광제일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터 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 (74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 (62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30회) 50 노년영화 (922회)
	8:00	20 신앙예세이 30 CTS한신예배Praise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2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50 체인지 더 월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말하는 시간 (1476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세) (4190회) 사도행전 1장	00 비전메시지 - 청문교회 이필산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6회) 경기도 용인 2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백세특강	5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하소서 (11218회) 김성권 문영은 목사 부부 1부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트 (48회) 꽃이 아름다운 이유 30 성지가 좋다 (460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 맛소와 아드라뫼네노
	10: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7000마리들 - 예수사랑여기에	30 말씀의 생터 든든한교회 장항희 목사	20 병하의 일과 - 야외수업 4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00 CBS NEWS 10 20 율리안 내팍 (6회)	00 내 삶의 행복 (133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성령의 치유 (101회)
오후	11:00	40 [워킹온다바이블]성령의 땅 50 [생방송] CTS 뉴스	00 GOODTV 진리의 시간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20 성지가족 (2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 - 한기재 목사 (1장) 이렇게 살라: 심계명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453회)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감시대 화요채플 30 TV강단 포이메이예수 (신우인)	20 말씀의 창 -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문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주성민 목사의 주당길 1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신앙예세이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비전설교 중앙성경교회 한기재 목사 3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율포원 (587회)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도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집 당당하고 위대하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 (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 (10927회) 윤민호 집사 1부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 (90회)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5:00	40 7000마리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의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김한오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 (3131회) 창세기 36장	00 2024 한소망교회 감사특방 (6회) 김관성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이재희 목사(분당햇빛교회)	00 세계테마기행 40 말씀의 생터 중만교회 임다윗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교회개혁 길라잡이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34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7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7:00	00 수영원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20 말씀의 생터 평택성원교회 박충권 목사 50 선교의 땅 가나를 가다	30 [말씀] 박신용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	50 영혼의 양식_구세군대한분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지 (3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8:00	00 생명의 말씀-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30 Miracle Moment 40 아주 특별한 찬양	20 아베스의 기도 50 리바이츠 헤리티지	10 휴먼넷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용인순전 (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 (국영호)	00 말씀의 창 - 율리씨교회 서대천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한교회 장항희 목사	
저녁	19:00	30 사장은 선교사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정약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이영훈 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 (535회) 30 TV강단 용인비전 (신용수)	00 비전메시지 -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20 글로벌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00 힐링스토리 1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2024 다니엘 기도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병하의 일과 - 야외수업 4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00 CBS 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_인턴제일 (이제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28회)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CTS 뉴스 30 바이블 프로젝트 40 내가 매일 기쁘게	50 GOODTV 뉴스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세) (4190회) 사도행전 1장 50 살롬 뿔뿔 (40회)	1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 (62회)
	22:00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10 매일 주와 함께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선한목자교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 (11218회) 김성권 문영은 목사 부부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4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 (384회) 김예환 목사 두 번째 (10장) 성경 365-복음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회)
	23:00	00 샬레이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 GOODTV 특별간중 감사특방	00 카일 아이들만의 로마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	10 율리안 내팍 (6회)	00 이석 목사의 열아버린 복음을 찾아서 (187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말씀의 생터 물뫼들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	10 성지가족 (28회) 50 성경포럼 이것이 궁금하다 (34회)	00 한소망교회 한밤의 기도회 (42회)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	0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10 말씀의 생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40 GOODTV 시네마 누가복음 1부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 (258회) 40 CBS 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믿음의 리액션 (12회) 경기도 화성시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2:00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10 GOODTV 특별간중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30 TV강단 승리 (박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3:00	00 다시보는[CTS WEEK] 50 #클럽CCM	10 다크프라이밍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Romans 3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	00 율포원 (182회)	00 맨-이 (14회)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서임중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허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물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4189회) 요한계시록 44장 50 CBS 교회사실 (976회)	00 C채널 명실고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430회)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미래는 이렇게 온다 새로운 모험러터를 타고



·AAM
도시나 또는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SPACE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다인승 공용 모빌리티

·PBV
고객 맞춤형
다목적 모빌리티 플랫폼

·DICE
새로운 개인 맞춤형
연승 모빌리티



이 모든 것을 소개하고 행사에 참가자들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HYUNDAI
MOTOR GROUP